사단법인 전국신문협회 The Association of National Newspaper

대전투데이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2934호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세종충남대학병원 건립 근로자 작업환경 '사각지대'

근로자 "극한 공해… 호흡기 질환 시달려" · 충남대학병원 측, 취재요청에 묵묵부답

미세먼지로 인한 공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세종충남대학병원 건립 근로자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분진과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세종충남대학병원 건립은 세종시 도담동 1-4구역에 지하 3층 지상 11층, 527병상의 규모로 지난해 5월 착공해 내년 10월 준공예정이다.

최근 공사현장에는 1일 450여명의 근로자가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지하 1,2, 3층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실내 공기질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않은 환경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다.

더구나 시멘트와 철, 돌가루 등 각종 유해물질을 그대로 흡입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두통과 호흡기 질환 등으로 병원을 찾거나 입원하는 근로자들이 생활걱정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 현장 근로자 A 씨는 "며칠 채 지하층에서 공사를 하다보니 머리가 아파 참기 어려웠다. 그래도 참고 일했지만 기침과 가래 등 호흡기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생활하기에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 B씨의 경우 "철근 용접과 쇠 등을 깎는 작업을 할 때 바닥에 쌓여 있는 먼지와 분진, 시멘트 가루, 쇳가루 등을 뒤집어쓰고 입으로 마실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다수의 근로자들은 시멘트바닥에 쌓인 분진과 미세먼지, 유해먼지 등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려 지하층을 뒤 덮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분진으로 인한 공기오염이 극심한 가운데에서도 방진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지급받지 않은 채 작업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라인더 처리과정의 경우 발생하는 시멘트가루, 비산먼지 등 흡입되는 유해공기는 상상을 초월하는데도 배출시설이나 오염측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씨는 "수개월 째 현장에서 일하던 동료가 가슴과 목이 답답해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인부들 대부분이 호흡기질환 환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층 시멘트의 독성 때문에 지하실은 항시 공기가 탁한데다 분진 등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느끼고 있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업장을 찾는다는 것이다.

세종충남대학병원의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집중 우기 시 발생하는 우수 및 시멘트가루 등 중금속 오염수 배출과 관련한 시설역시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건축물 곳곳에 균열, 누수로 보이는 물고임 현상과 습기, 심지어 줄줄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 부실시공의 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본지는 지난 12일 충남대학병원 측에 해명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김성구 기자

충청권 교육혁신 한마당

마을 속에서 성장하는 학교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나누는 '2018 충청권 교육혁신 한마당'이 17일 천안 상명대학교에서 교원, 학부모, 학생, 마을교육활동가 1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열렸다.

충청권 4개 시 · 도 교육청(대전 · 세종 · 충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충청권 혁신교육의 성과와 전망을 함께 나눴으며,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마을교육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를 벌였다.

'마을 속에서 성장하는 학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마을교사와 학생들이 펼치는 무대공연, 혁신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세미나 ,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53개의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특히 교육청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온 충청권 마을학교들이 운영하는 29개의 다양한 체험 부스는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학부모와 함께 온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충청권 교육청은 이번 교육혁신 한마당을 통해 학교혁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 교육혁신의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혁신교육이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지곡농촌마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부실공사 도마위

준공 2년이나 늦어져… 주민들, 발주처 · 수탁사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서산시로부터 수탁 받아 한국농어촌공사 서산 · 태안지사가 진행 중인 지곡농촌마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공사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상판을 지지하는 기둥은 페인트 작업을 하지고 않고, 묻고 노출된 곳만 페인트 작업을 진행해 부실공사라는 지적으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 구조물이 땅속에 묻힐 경우 부식이 빨라 수명 단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완벽한 페인트 작업 후 매립해야 한다.

철 구조물 이음새 부분은 전체를 용접해야 하지만 일부만 용접된 상태라 주민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이음새 전체 용접의 필요성 요구하고 있다.

상판 쪽 이음새 부분 용접을 보면 퍼지가 생겨 구멍(사진)이 뚫려 있거나 용접 잔여물(용접봉, 피복)로 덮어져 있는 곳도 눈에 띄어 부실공사라는 주민들의 지적에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철 구조물 일부 용접부분이 위에서 아래로 끌어 내리는 방식으로 용접한 곳이 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맞을 경우 연결부분이 약해 무너질 수도 있다.

이음새부분을 용접으로 연결할 경우 밑에서부터 용접을 해야 철 구조물의 쇳물과 용접봉의 쇳물이 이음새를 파고들어가 연결 부분을 단단하게 한다.

현장 안전관리도 지적된 상태이다. 고소작업의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해야 안전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지만 기본적인 안전장구인 안전모나 안전벨트(사진), 안전화조차 착용하지 않아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현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아직 용접부분은 공사가 진행 중 이라며 이음새 전체를 용접 할 것이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흙으로 묻힌 곳도 흙을 파내고 페인트칠을 하겠다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산시 지곡농촌마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공사는 2014년 착공해 2017년 준공하기로 한 사업이지만 2년이나 준공이 늦어진 상태이다.

준공이 2년이나 늦어진 상태에서 부실공사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발주처인 서산시와 수탁사인 농어촌공사의 관리감독이 주목 받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하경옥 유성구의회 의장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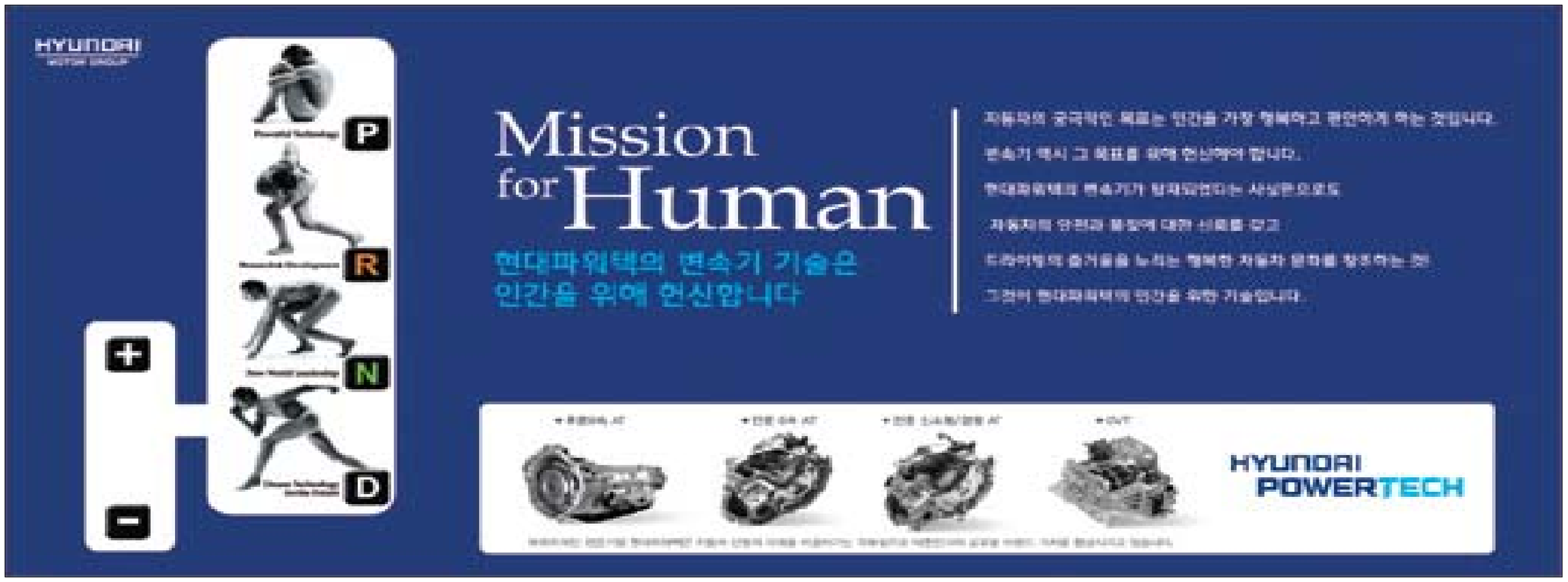
건보공단 대전유성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지사장 송영수)는 지난 16일 유성구의회 하경옥 의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하고 건강보험제도와 현안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서 하경옥 명예지사장은 공단 주요사업 및 지사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상담과 결재 등 현장체험을 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경옥 명예지사장은 "유성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지사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유성구의회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 기자



서산시도 충남도의회 행정감사 거부

부여 · 천안 · 보령 등 4곳 모두 감사 무산

충남도의회의 일선 시 · 군 행정사무감사가 16일 서산시의 거부로 부여, 천안, 보령 등 4곳 모두 감사가 무산됐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 서산시청을 찾았으나, 입구에서 서산시청 공무원노조 등의 저지로 진입하지 못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시군 행감 즉시 폐지', '자치분권 강화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산시청 앞에서 도의원의 시청 진입을 막으며 1시간가량 대치 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행정감사에 대한 반발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 대응을 예고해 파장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견재와 상호 보완의 계기를 삼아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충남도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서산시 국 · 과장급 공무원들은 서산시의회의 현장 방문 일정으로 시청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국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산=김정한기자

한밭대 창업보육센터, ㈜다른코리아와 창업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16일 대전시 중구의 스파크플로우 스퀘어에서 ㈜다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한밭대 창업보육센터(센터장 김건우)와 스파크플로우 메이커흥신소((주)다른코리아 운영, 은행동 소재)가 창업활성화 및 메이커문화 확산에 상호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약으로 한밭대 창업보육센터와 ㈜다른코리아는 창업 및 메이커 프로그램을 공동 발굴하고,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모델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협업한다.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 법안 발의

'첫째 아이'부터 확대 시행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35만 7,800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로 나타나 '0명대 합계출산율'이 현실로 다가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둘째부터 해당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째 아이'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6일,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자를 기존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에서 첫째자녀부터 자녀 1명마다 각각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적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 두 명을 초과하는 자녀 한 명마다 18개월을 각각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자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입자로 제한해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있어 1명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적용을 받지 못하고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때에는 첫째부터 자녀 1명마다 각각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40만명 아래로 처음 떨어졌고,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로 나타나 '0명대 합계출산율'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관련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대상자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입자로 제한되어 있어 본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입자에 한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명시되어 있던 부분을 첫째아이부터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오늘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2018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전향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어 법안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김성구기자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찾아가는 현장 정책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 육동일)은 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교육장에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음하는 대전 중소상공인의 실태와 희망 찾기'라는 주제로 이규태 前 산림청 국장의 기조발제가 있겠고, 이어 전제모 대전경제살리기운동본부 회장, 김성태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통시장상인 관계자(미정), 現 구의원(미정) 등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한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줄 육동일 대전시당 위원장은 "중앙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혁신 작업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지만 민생 경제와 밀접한 수많은 소상공인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직시해,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목소리를 들어보는 한편 대전시당 차원에서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정책토론회를 갖게 되었다"며 개최 취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앞으로 대전시당에서는 대전시정을 감시 · 견제하고, 야당으로서 대안 제시를 위한 정책토론회(간담회)를 분야별로 테마를 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정환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 道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정책감사 주력

교육정책국 6개 부서 행정사무감사 · · 교육정책 대한 날선 지적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16일 충남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업무 처리를 주문했다.

김은나 위원(천안8)은 "올해 출제 오류 등으로 중간 · 기말고사 재시험 횟수가 무려 중학교 66건, 고등학교 155건에 달한다"며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면 교육이 무너진다"며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학업성적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은 "도내 학생 체육선수의 타 시도 전출시 일부 체육종목협회에서 이적동의를 미발급, 체육선수로 활동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수년간 운동선수의 꿈을 꾸며 훈련에 매진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관계자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고 주문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은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정책을 펼치면서도 정작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학생회장 선거에 투표권이 없다"며 "향후 초교 학생회장선거에 저학년 학생들도 투표에 참여해 민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대부분 학교 보건실에서 상담일지를 수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료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향후 보건실 상담일지, 약품관리 등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향후 학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장(천안6)은 "교육위에서 이번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 또는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전에서 '전국 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수석부회장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과 책임 다하겠다"

전국 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가 지난 16일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전국 17개 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개최' 등 5건의 협의회 추진사항과 '광역의회 실태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등 3건의 현안사항이 보고 · 논의됐다.

이번 정기회를 주관한 협의회 수석부회장인 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운영위원장은 "견고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강조하면서, 전국 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중심에 서서 지방자치 발전과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9년은 「대전방문의 해」로 전국 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대전을 찾아 맘껏 즐기고 힐링하여 멋진 추억을 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오늘 회의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 참석한 전국 시 · 도의회운영위원장과 관계공무원 50여명은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기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각종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국방과학관을 관람했다.

한편, 1997년 처음 구성된 전국 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 · 도의회 의장협의회 실무기구로서 시 · 도의회 공동이해사안 협의 및 의견수렴과 채택안건의 의장협의회 상정, 의회 운영관련 현안사항 협의 및 정책 계발, 시도 상호간 정보 교류, 지방의회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이며, 현 8기 전반기 협의회는 2018년 9월 구성되어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정환기자

공주시의회, 종이 없는 의원간담회 열려 '화제'

노트북 활용, 자원과 행정력 낭비 최소화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가 지난 16일 열린 의원간담회를 종이 문서 대신 노트북을 사용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종이 없는 간담회로 진행해 화제다.

이 날 간담회는 회의 자료를 종이로 출력해 의원별로 배부하는 방식에서 의원 각자의 노트북에 입력된 한글파일로 된 회의 자료를 활용해 의원간담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자원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했다.

이렇듯 종이 없는 공주시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주시의회는 지난 10월8일부터 8회에 걸쳐 의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일반 및 인터넷 활용을 비롯해 스마트폰 활용, 한글 2010, 파워포인트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박병수 의장은 "정보화, 전자화된 사무환경에서 종이자료의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회의 시 과다 생산되는 인쇄물로 인한 자원과 행정력 낭비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도입 했다"며 "앞으로도 의회 운영 시 노트북 활용을 더 늘리고 종이 인쇄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백석대 · 백석예술대, 서울 시청 앞 광장 '트리' 밝혀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 백석예술대학교는 11월 1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018년 성탄절을 앞두고 '2018 대한민국 성탄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불을 밝히는 높이 25미터, 밑지름 12미터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는 점등식을 시작으로 2019년 1월 6일(일)까지 불을 밝힌다.

이번 '2018 대한민국 성탄축제' 행사에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탄 축하를 위해 주한미국 로버트 랩슨 부대사 등 많은 귀빈들이 참석했으며, 지난 해에 이어 경찰관, 소방관, 택시운전기사, 군인, 새터민 등이 대표로 무대에 올라 성탄트리 점등 스위치를 눌렀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3회 정례회 2차 회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사 · · 원안가결 19건, 수정가결 2건, 부결 2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제2차 회의에서 23개의 조례안과 동의안,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날 집행부로부터 2019~2023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받고,「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등 17건의 조례안과「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등 5건의 동의안,「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 23건을 심사한 결과, 대안 1건을 포함한 19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2건은 부결시켰다.

심사안건 중「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시민과 한부모가족,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고,「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용어가 주는 혼란을 줄이고자 수정가결 했다.

또한,「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와 용역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존 안건을 부결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여 원안가결 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옴부즈만의 성격과 기능에 있어 집행부의 심도있는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했다.

세종=김태선기자

세종시 중고생 무상교복 현물로 지급한다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통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11월 16일 제5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치열한 토론 끝에 현물 지급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무상 교복 지원방식을 두고 현물과 현금으로 의견 차이를 보인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상교복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기존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교복구입비를 우리 시 관내 중고생 전체로 확대해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복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자는 본래 목적이 중요하므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잘 진행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세종시 관내 초등학생들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생존수영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 등은 11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김태선기자

중국 우호도시 교류협력 성과 빛났다

세종시, 교류협력상 수상… 샨시성과의 민간교류 성과 인정

세종특별자치시가 중국 샨시성과의 청소년 · 체육 분야 교류협력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가 뽑은 중국 도시와 교류 성과가 우수한 해외도시에 선정됐다.

시는 김덕중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우한시에서 열린 중국 국제우호도시대회에서 '교류협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교류협력상은 중국에서 2년마다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 주최로 개최되는 국제우호도시 대회에서 중국-해외도시 간 국제교류 성과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인민대외우호협회는 지난 1954년에 설립된 외교단체로, 중국의 민간외교 및 해외지방정부와의 국제교류 자매 우호도시 간 체결 및 관리를 담당하는 중국 외교부 산하기구다.

지난 2016년에 이어 2년만에 열린 올해 국제우호도시대회에는 세종시를 비롯해 세계 59개국 105개 도시가 참가했다.

세종시대표단은 이번 행사에서 교류협력상 수상은 물론, 구이저우성과 허베이성 등 우호교류 도시와 만나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중국 샨시성과 지난 2015년 5월 우호협력 협정서를 체결한 이후 청소년 문화 · 체육교류, 상호 방문 및 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성과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세종시 청소년 태권도 대표단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중국 샨시성을 방문, 한중 청소년 태권도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 간 우의를 다지는 등 민간교류 분야에서도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17일 중국 카이펑시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우호도시 협력상을 수상하는 등 중국 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분야에서 잇달아 성과를 내고 있다.

김덕중 정책기획관은 "이번 중국 교류협력상 수상으로 세종의 위상을 높이고 중국 내 다른 도시와 교류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국은 물론, 세계 여러 도시와 교류협력 및 국제화 사업을 통해 글로벌 명품도시 세종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내포신도시 1호 기업 한양로보틱스 착공식

내포신도시 '1호 기업'이 마침내 첫 삽을 뜨고 공장 설립 공사에 본격 돌입했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 기업은 내년 6월부터 가동을 시작,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도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한양로보틱스(대표이사 강대충)'는 이날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본사 및 공장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와 한양로보틱스 임직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착공식은 공사 보고와 대표이사 기념사, 시삽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997년 설립한 한양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인 자동취출로봇과 공장자동화시설을 전문적으로 생산 · 설계 · 설치하는 기업으로, 현재 인천에 위치해 있다.

연매출 200억 원을 달성 한 바 있는 이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재 기아자동차 등 500여개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 외 시장을 확장해 가고 있다.

내포신도시로의 이전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4년 8월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한양로보틱스는 내년까지 내포첨단산단 1만 6529㎡의 부지에 81억 원을 투자해 최첨단 산업용 로봇 제조 공장 및 설비를 구축한다.

내년 6월 공장이 준공되면 한양로보틱스는 생산량을 월평균 60대로 늘려 매출액도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성구 기자

제8회 댄스 페스티벌 성황리 종료

대전도시철도, 전국 40개팀 1000여명 참여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가 주최하고 서대전네거리역 댄스연습장 두더지홀에서 열린 제8회 전국 댄스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전국 춤꾼 40개팀 100여명이 참석한 댄스 대회에서 문앤태성(Moon&Taesung)팀이 1위를 차지했고 프라임킹즈(Prime Kings)팀이 2위, 락봉앤더블디(Lockbong&DoubleD)팀이 3위을 차지해 우승상금 70만원, 50만원, 30만원을 받았다. 대전 출전팀 MBA팀은 특별상을 수상하고 2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예선에서부터 결선까지 흥미 넘치는 2:2배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MC는 2014 JUSTE DEBOUT KOREA 대회를 진행한 정상현씨가 맡았고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가 주관했다.

댄스 대회 영상은 대전 MBC 유튜브 라이브(undergroun session vol8)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21일(수) 대전 KBS 오후 5시30분「TV이웃 다정다감」프로그램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공사는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행사장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과 비상출구 안내문을 게시했다.

공사 송치영 경영이사는 "오늘 열린 댄스페스티벌은 승부를 떠나 전국 청년들의 열정이 하나가 된 자리였고 행사가 열린 서대전네거리역 무료 댄스연습장 두더지홀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며 "청춘열차 대전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해주고 공사도 청년들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대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개소식

홍도동(구)동부교육청사 부지 연면적 1560㎡ 규모로 완공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1월 16일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교사, 보호자 등 교육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출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15년 10월, 홍도동 (구)동부교육청사 부지로 이전을 확정하고, 수선공사와 기자재 구입을 위해 약 37억 9천여만원 예산을 들여 지상 3층, 부속동 등 연면적 1,560㎡ 규모로 지난 8월에 완공되었다.

지난 9월,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대전가원학교에 설치된 전환교육지원센터를 통합 이전했으며, 11월 16일(금)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장애관련 단체장, 특수학교장, 학생 및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소식을 가졌다.

주요 업무는 ▲장애학생 조기발견 및 상담, 진단평가 ▲통합교육 및 순회교육 지원 ▲진로 · 직업 및 전환교육 ▲보조공학기기, 치료지원 등 관련서비스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수 · 학습 지원, 교사 및 학부모 연수 등이다. 이를 위해 장학관(사), 순회교사, 주무관, 잡코디네이터 등 총 21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주요 시설로는 ▲진로 · 직업교육을 위한 직무실습실 4실, 카페 ▲일상생활 교육을 위한 자립생활실, 여가문화실 ▲관련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실 ▲연수실, 다목적실 등 총 16실로 이루어졌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본격 출항하게 된 것을 대전교육가족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며 "장애학생 자립과 사회 통합 역량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2018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발표

농식품부 · aT, 5개 부문 총 15점… 오는 23일 시상식 열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18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결과를 발표했다.

5개 부문에서 각 3점씩 총 15점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부문별 대상 5점 중 '농업회사법인 ㈜술샘'의 '미르 40'이 대통령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술의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촉진하고 명품주를 선정,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품평회는 총 5개 부문 탁주(살균 탁주, 생 탁주), 약 · 청주(약주, 청주), 증류주(일반증류주, 증류식소주), 과실주, 기타주류로 출품작을 신청 받는다.

출품작들은 교수, 전통주 소믈리에, 우리술 연구가, 주류 관련 MD, 양조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이 우리 농산물 사용실적과 술품질인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전문가들의 관능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산정한다.

대통령상은 5개 주종별 대상 수상작 중 주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평가와 관능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2018 우리술 품평회 시상식은 오는 23일 양재 aT센터(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메인 무대에서 개최되며, 대통령상과 함께 15점의 우리술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aT 사장상 등 영예로운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된다.

송병배 기자

NH농협은행 대전영업부-선화파출소 경찰들

금융사기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 캠페인

NH농협은행 대전영업부 직원들과 대전 선화파출소 경찰들이 지난 16일 대전 중앙로역 근처에서 「금융사기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최근 고령층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도 금융사기가 증가하는 것에 주목해 새로운 사기수법 등을 안내하고 홍보물 배부와 사기예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NH농협은행 대전영업부 이만주 부장은 "각종 금융사기 피해 및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노력해 안전한 금융거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 기자

●동 정●●●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19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희의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19일 오전 10시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희의에 참석.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추진보고회

황인호 동구청장= 19일 오전 10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추진보고회를 개최.

보도육교 제설자재 배치

장종태 서구청장= 19일 오전 10시 20분 은평공원 인근에서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보도육교 제설자재 배치.

동장 티타임회의 주재

정용래 유성구청장= 19일 오전 8시 30분 구청 소회의실에서 동장 티타임 회의를 주재.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주재

박정현 대덕구청장= 19일 오전 9시 30분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주재.

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회의 열어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지난 16일 중리동에 있는 둥근빛작은도서관에서 '2018년 제2차 대덕구 사립작은도서관 연합회 회의'를 개최했다.

대덕구 내 23곳의 사립 작은도서관 관장 및 운영자들이 모인 이날 회의는 동네에 살아있는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도서관 간 연대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매년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38개 작은도서관에 9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함께한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학습,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인적 네크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창고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작은도서관 확충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작은도서관 연합회는 지난 6월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열었고, 9월에는 작은도서관 주관으로 '함께해요! 작은도서관 축제'를 열어 지역민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진바 있다.

대덕구, 에너지정책 수행 위한 부서합동 워크숍

에너지전환의 시대 앞장선다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지난 16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정부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區 에너지정책 수행을 위한 부서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구는 신재생에너지와 지역자립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직원의 인식변화 및 역량강화와 더불어 신에너지 정책 로드맵을 구상하기 위해 이날 워크숍을 열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을 비롯한 대덕구 에너지경제과 등 각 부서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이유진 공동대표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지자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유진 대표는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전환의 방향은 에너지 자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역에너지전환에 따른 대덕구 에너지 정책'이란 주제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청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방향과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전환 정책은 교통, 일자리, 복지,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돼야 종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구민과 함께하는 지역에너지 전환 시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구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대덕구는 그간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으로 '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보급', '대덕국민체육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장동 공동 홈 태양광방전설비 설치', '경로당 등 전기시설(LED 교체) 개선' 등을 추진해 왔으며,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대덕구 신청사 에너지제로 건축' 등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한 세부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市 김장철 성수식품 합동점검 실시

고춧가루 · 김치류 · 젓갈류 등 제조 · 가공업소 대상

대전시는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용 성수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시 · 자치구 식품위생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민 · 관 합동점검반 3개반 9명을 편성해 고춧가루, 젓갈류, 향신료 가공품, 김치류 제조업소 등 총 26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 무신고 ·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불법 사용여부 ▲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아울러 대형마트,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김치류의 원료인 고춧가루, 젓갈류, 향신료 가공품을 수거해 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 등 기준 · 규격 적합여부의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대전시 이숙 식품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여성폭력 추방 결의대회 및 캠페인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난 16일 둔산동 갤러리아 타임월드 랜드마크에서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여성폭력 추방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임진찬 서구 부구청장, 박종민 둔산경찰서장, 통장협의회, 민간어린이집 등 26개 기관과 봉사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하여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와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홍보물 및 기념품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며 시청역까지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서구 관계자는 "지난 1여 간 아동학대 예방과 여성폭력 추방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애써주신 유관 기관 · 단체 회원님들과의 행사에 함께 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기관 · 단체 간 협업으로 보호체계가 한 걸음 더 진전되며 새롭게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봉관 기자

시내버스 업계와 '사랑의 연탄' 배달

저소득가정 · 독거노인세대에 연탄 12,000장 전달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17일 동구 대동에서 대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광철)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갖고 저소득가정과 독거노인세대에 연탄 12,000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원봉사에서는 시내버스 13개 업체 및 노동조합 대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시청 버스정책과 직원 100여 명이 함께 대동 산1번지 지역의 저소득가정과 독거노인 40세대에 300장씩 연탄을 배달했다.

연탄배달에 참여한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연탄은 서민 가정의 중요한 난방 수단"이라며 "오늘 대동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시내버스 업계의 정성이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철 이사장도 "시내버스가 시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 했다.

이영호 기자

제6회 전국 꿈나무가족 과학골든벨 성료

유성구 학생들 다양한 경험 선사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지난 17일 카이스트에서 개최한 제6회 전국 꿈나무가족 과학골든벨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과학골든벨 대회는 서울, 인천,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 초등학생 및 학부모 200팀(400명)이 2인 1조로 참가해 과학에 관한 문제를 푸는 유성구의 대표 과학 이벤트다.

또한, 대회에서는 과학 퀴즈를 푸는 시간 외에도 과학실험공연, 과학체험부스(LED팝업카드, DNA저금통 만들기) 등을 마련해 미래의 꿈을 찾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했다.

특히, 과학골든벨은 예선과 본선, 결선, 최종 1인의 골든벨을 거쳐 우승자를 비롯한 10명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으며, 영예로운 제6대 골든벨 주인공이 탄생했다.

수상자는, 1등(골든벨) 이루진(6학년, 파주 심학초), 2등 서준혁(6학년, 논산 동성초), 3등 이도규(6학년, 대전 송강초), 4등 최지호(5학년, 당진 원당초), 채지민(5학년, 수원 영덕초), 5등 강양훈(5학년, 대전 어은초) 외 4명 등 10명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과학의 중심도시 유성에서 과학을 배우며 추억을 쌓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며,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과학의 꿈을 키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서대전우체국 찾아가는 마음검진 상담소 운영

서대전우체국은 건강한 조직문화와 직장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검진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찾아가는 마음검진 상담소'는 전문 상담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HRV기기를 이용해 스테레스에 대한 신체적 반응을 검진하고 개인 주제(직무스트레스, 가정문제, 자녀양육, 개인정서 문제 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한우향 국장은 "직원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직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대국민 우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사랑 · 희망 · 나눔 바자회 성료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16일 구청 잔디광장에서 동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윤관), 이마트 대전터미널점(점장 김도영)과 함께한 사랑 · 희망 · 나눔 바자회가 주민 1천 여 명이 모이며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올해 5번째로 열리는 이번 바자회는 지역사회가 함께 복지 사각지대 주민 지원에 동참하는 자리로, 판매 수익금 전액 동구 천사의 손길에 기탁되는 뜻깊은 행사다.

이날 행사장인 구청 잔디광장에는 이마트에서 가져온 신발, 장난감, 자동차용품 등 리퍼상품 5천 여 점이 준비돼 실제 시장 못지 않은 규모로 진행됐다.

친구, 가족 등과 함께 찾아온 주민들은 착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일반판매 외에도 구매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물품경매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황인호 청장은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마트 대전터미널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수익금이 많은 이웃들에게 전달돼,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동구, 오는 22일까지 95곳 업소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 판매업소 위생 점검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 점검에 나선다.

식품위생 담당 직원과 전담 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위치한 슈퍼마켓, 문구점, 매점 등 95곳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내용은 무신고 영업 및 (수입)무신고 제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 조리 · 보관 · 진열 · 판매, 조리 · 판매시설 위생관리,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및 개인위생 관리,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고 재차 미이행 또는 중대 위법사항에 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위생 지도 · 검을 실시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충남대병원 대전지역암센터

제1회 고품격 암진료 심포지엄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지역암센터(소장 김지연, 외과 교수)는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암센터 2층 의행홀에서 <다학제 통합진료>를 주제로 제1회 고품격 암진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다학제 통합진료는 환자중심의 암치료에서 대표적인 진료형태로 환자의 만족도가 높으며, 치료성적이 좋은 진료시스템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암치료에 있어서 다학제적 접근성의 필요성과 최신지견을 알아보고 운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지연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충남대학교병원 외과 김지연 교수와 이비인후과 구본석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암진료의 다학제적 접근과 최신지견(국립암센터 위암센터 김영우 교수) ▲정밀의료 시대의 병리과 의사의 역할(여의도성모병원 병리과 김태정 교수) ▲다학제 진료의 실제: 대장암팀(충남대학교병원 외과 김진수 교수) ▲다학제 진료의 실제: 위암팀(충남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문희석 교수)의 강연이 진행되고,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지연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다학제진료에 대한 현장의 고민을 이해하고 해소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암진료 체계가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 가속도

맹정호 서산시장 " 수소를 서산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

서산시는 지난 15일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는 산업통산자원부 및 충청남도 등에서 출연한 공공기관으로 2015년 충남 내포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수소차 전문 인력을 갖춘 기술지원 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내년 착공을 앞둔 기술집약형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대해 충남테크노파크가 기술검토 및 공사감독과 시운전의 업무를 대행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산시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국내 부생수소 생산량의 11%인 267,000Nm³/hr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수소자동차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서산시는 최근 환경부 수소버스 시범도시 선정과 더불어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에도 선정되면서 향후 수소차 및 수소기반 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내년 수소충전소 설치 · 운영을 기점으로 수소차 30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2020년까지 수소버스 5대를 시내 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차 90여대 및 400여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저녹스(NOx) 버너 교체 지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해 수소를 서산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아산시 대학합동 취업 경진대회 열려

아산시는 '제6회 취업경진대회'를 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와 호서대학교 취업지원팀의 공동 주관 하에 아산고용복지플러스 회의실에서 지난 15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채용에 대비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마련된 이번 취업경진대회에는 경보제약(주), 동원F&B, 한국전기안전공사, ㈜휴비즈코리아의 인사담당자와 아산시 관내 대학생 20여명이 참가했고, 모의집단면접 및 PT면접을 통하여 학생들의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실전에 대비하고자 진행됐다.

기업 인사담당자의 공정한 평가 결과 대상 조진경(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4학년)학생을 비롯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등 총 6명에게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됐다.

대상을 차지한 조진경 학생은 "이번 경진대회에서의 경험이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앞으로의 실제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이 적극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 청정 해수 절임배추 '인기'

바닷물로 절여 미네랄 풍부

김장철을 맞아 태안 청정 해수 절임배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태안의 새로운 소득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태안군 고남면에 위치한 한 절임배추 업체에서는 최근 김장철을 맞아 직원들이 하루 평균 130박스(20kg들이)의 절임배추를 판매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태안산 바닷물 절임배추는 태안 청정 바닷물을 이용, 전통 방식대로 배추숨을 죽여 1~2일 간 절이는 과정을 통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아삭한 식감이 오래 유지된다.

또한, 일반 소금으로 배추를 절일 경우 소금에 따라 김치가 짜거나 쓴 맛이 나는 반면, 바닷물 절임배추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간이 배추에 골고루 스며 김치 맛이 고소하고 입맛에 따라 양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김장과정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배추절임 과정을 대신해주고 아파트 내에서도 간편하게 김장이 가능하며 김장 후 골칫거리인 김장 쓰레기도 줄일 수 있어 전국의 주부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태안=김정한기자

아산시농기센터 우리 쌀 소비촉진 위한 '쌀 빵' 나눔 행사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는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쌀 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제23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맞이해 지난 15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우리 쌀을 이용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쌀 빵 나눔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아산시생활개선회들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우리 쌀 가공품 소개 및 밀가루가 아닌 건강한 쌀로 만든 베이킹(쌀 마들렌, 찹쌀파이) 나눔 행사를 가졌다.

찹쌀 빵은 100% 찹쌀과 완두, 팥, 견과류 등 영양가가 높은 재료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식사대용으로도 손색없는 빵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며 쌀로 만든 가공품의 소개로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쌀의 소비 정착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쌀 소비가 줄어들어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쌀을 이용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새마을금고 MG체크카드 QR결제 서비스 시작

]새마을금고 MG체크카드가 16일부터 체크카드가 없더라도 스마트폰 어플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QR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MG체크카드는 업무대행사인 BC카드에서 지난달 BC카드의 자체 온라인 결제 플렛폼인 페이북(Paybooc)앱을 이용해 QR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MG체크카드도 페이북 QR결제 시스템에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QR코드를 인식하는 스캐너가 설치된 가맹점에서 카드 없이도 기존 카드결제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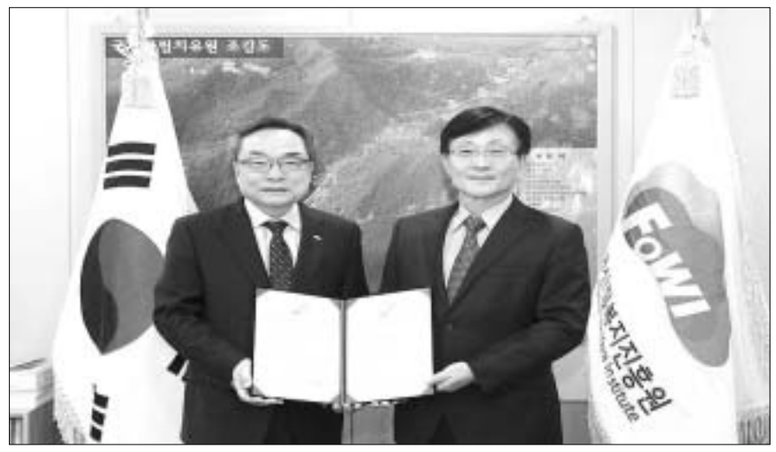
QR코드 결제 방식에는 회원이 스마트폰으로 페이북앱을 구동하고 앱 상에서 QR코드를 생성하면 가맹점에서 스캐너를 통해 QR코드를 인식해 결제하는 CPM(Customer Presented Mode)방식과 가맹점이 보유하고 있는 QR코드를 고객이 앱을 통해 가맹점의 QR코드를 인식해 결제하는 MPM(Merchant Presented Mode)방식이 있는데 현재는 고객의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생성하는 CPM방식 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후 MPM방식도 확대할 예정이다.

16일부터 30일까지는 MG체크카드로 GS25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페이북 QR로 구매시 50%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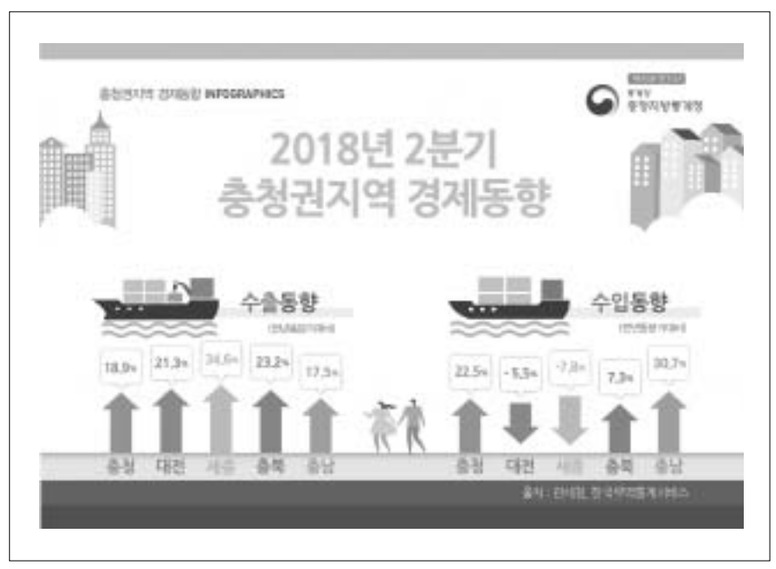
행사 상품은 도시락 및 면요리 전 제품이며 행사기간 내 최대 15개 수량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컵라면, 봉지면은 행사에서 제외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카드사업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MG체크카드는 회원의 요구 사항에 항상 귀를 기울여 다양한 회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결제 수단 다양화를 통해 MG체크카드의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병배기자



산림복지진흥원,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SQ) 획득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서비스진흥협회(KOAS)가 운영하는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SQ, Service Quality Certification)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어 사랑 축제 '꿈민정음' 실시

충남 학생 · 교사 책과 함께하는 국어 한마당 축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7일 아산 배방고등학교에서 도내 초 · 중 · 고 학생과 교사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충남국어 꿈민정음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꿈민정음 축제는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정신을 계승하여 바르고 고운 말을 마음껏 펼쳐 써서 꿈을 이루자'는 주제로 실시되는 것으로 우리 말과 글, 국어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사랑과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축제는 체험활동부스(활동형, 심화형)와 교사 수업나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파주 북소리 합창단의 '노래하는 책 이야기'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학생 체험활동과 교사의 수업자료 공유, '글老 잇다'라는 주제로 어르신들의 시화 작품 특별 전시 등으로 진행됐다.

학생 체험활동부스는 천안중앙고등학교 외 18교의 학생들이 동아리별로 '빵! 터지는 국어 퀴즈', '나만의 문학 달력', '잼잼! 우리말 놀이터' 등 다양한 국어 활동 부스를 운영했다.

사전 신청자가 참여하는 심화형 참여 부스는 아산테크노중학교 외 7개교에서 '책 이야기 나눔', '국어야 놀자! 자음의 힘' 등을 운영하고, 교육연극인, 소설가, 시낭송인, 기자 등 국어 관련 직업인과의 만남, 한국영상대학에서 추진하는 아나운서 및 성우체험 등 한글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직업 세계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김정환기자

아산시, 2018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오세현 시장 비롯 관내 평생학습 관련 대표 등 구성된 위원 9명 참석

아산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산시평생교육협의회를 당연직 위원인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해 관내 평생학습 관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진행은 선문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상옥 사무국장, 음봉산동종합복지관 장보윤 관장에 대한 위촉장을 오세현 시장이 수여한 후, 시장 인사, 추진사업 및 신규시책 보고, 자유토론 순으로 치러졌다.

오세현 시장은 "평생학습은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학교교육은 의무적,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지만 평생학습은 수요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진행된다"며,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0세가 넘는 시대에서 성인들에 대한 자발적, 선택적 배움의 열망에 대해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2018년 평생학습 주요추진사업 보고를 보면 정규강좌 운영에 3656명이 참여하고 15개 과정 261명 자격증 취득,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선문대 1619, 유원대 759명,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765명, 소외계층 문해교육 297명,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아산청백서당 고전강좌 등 4개 프로그램에 830명, 행복아산 시민아카데미 운영 7회에 448명, 온라인 평생교육 430명에 민간자격증 123명 취득, 평생교육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으로 유아돌봄교실 387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했으며,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운영 등 4개 사업,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로 동부지역(배방, 탕정), 북부지역(음봉, 둔포)에 각 1기당 30여개 프로그램을 연 3기 운영 등이며, 2019신규 사업으로 평생학습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상하반기에 2회 및 수시로 재능기부 강사를 모집 후 프로그램을 4~6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수혜계층 확대 방안,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선정, 신규개설강좌 홍보 방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용 방안, 소외지역 찾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시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분석, 각급 기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세현 시장은 "시 및 위탁기관의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만큼 각 기관이 역할분담해서 미흡한건 보완하고 일부 특성화 된 프로그램 등은 사전에 논의해서 검토하는 등 평생학습에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 구성은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에 아산시장, 위촉직 10인은 아산교육지원청,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선문대학교 평생교육원, 호서대학교, 아산시주민자치연합회, 음봉산동종합복지관 등 9개 기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배재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배재대(총장 김영호)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9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합격자는 내달 17~19일 은행마감 전까지 합격자에 치금 3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본 등록금 납부(최종등록)는 내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 은행마감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앞서 배재대는 신입생 가계부담 경감과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장학금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대전 · 세종지역 고교 졸업자 장학금' 신설이 눈에 띈다. 이 장학금은 대전 · 세종지역 소재 고교 졸업자(인문 · 전문계)가 정원 내 최초 합격한 학생에게 최초학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배양영재(학생부 종합)전형 최초합격자 성적장학금 수혜도 증가된다. 입학성적에 따라 1~3위 150만원, 4~8위 100만원, 9~15위 70만원이 각각 최초학기에 한해 지급된다.

김정환기자

금성백조, 2018 하반기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 채용

금성백조가 2018년 하반기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모집분야는 신입사원의 경우 건축(공사/설비/전기), 안전보건, 경력사원은 건축(견적), 안전보건, 분양관리, 구조설계, 경영지원(재무/법무 · RM) 부문에서 28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공통 응시자격은 병역 필 또는 면제자,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로 직무별 관련 경험과 유관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총 채용규모는 00명이며, 각 직무별 경력 연한과 경력 우대 세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실무진 면접, 인적성 검사, 경영진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각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개별 안내한다.

2018년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50위를 기록한 금성백조는 1981년, 대전에서 창립한 중견 건설사로 본사는 대전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주택, 건축, 토목, 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채용은 사세 확장으로 인한 인원 충원으로 합격자는 서울, 경기 김포, 동탄, 보령, 대전, 세종, 대구, 사천 등 전국 사업지에 배치될 계획이다.

※ 입사지원: www.ksbj.co.kr (금성백조 홈페이지) 內 온라인 입사지원
문 의: recruit@ksbj.co.kr / 042-630-9534(채용담당자)

김태선기자

청양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워크숍

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직무연찬 및 힐링 기회 가져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보령한화콘도에서 사회복지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청양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가중되는 복지업무로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정신적 재충전과 직무연찬을 통해 친절하고 적극적인 복지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은 고양시 신도종합복지관 이경온 관장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이어 화성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이상구 주무관의 '현장에서의 사례관리' 발표로 사회복지 실무에서 행정기관과 민간사회복지 영역의 협치에 대한 전문교육이 진행됐다.

둘째 날은 해양바이크 체험과 '사상체질을 통한 소통' 등의 참여형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돼 참가자들은 힐링의 기회를 얻었다.

청양=정상범기자

당진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우수기관 선정

당진시 보건소, 맞춤형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탁월

당진시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8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지자체 보건소가 수행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전반에 운영성과 및 우수사례 등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당진시 보건소는 요구도 조사를 근거로 한 맞춤형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2006년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2곳 한방장수마을을 지정 · 운영하는 등 지역 사업 추진전략이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서 한의사 및 14명의 인력이 참여해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유연성 운동, 낙상예방, 기공체조 등 참여자 스스로 활력을 찾아갈수록 한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당진시 보건소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환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 ·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건양대, 메디바이오 페어 개최

'스마트침대' '밸런스시스템' 등 학생들의 아이디어 만발

건양대학교(총장 이원묵) '차세대 의료공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글로벌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공학교육혁신센터, 실전문제연구단'이 주최한 '2018 KYU MediBio Fair'가 15일과 16일 양일간 건양대 대전 메디컬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번 2018 KYU MediBio Fair에서는 기업연계 프로젝트, 실전문제 연구단의 프로젝트 목표에 대한 홍보 및 성과물 전시,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수상작, 제약생명공학과 우수논문, 학과별 졸업작품 등 총 190개 작품이 전시되며 건양대학교 의료공과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만들어온 우수한 실적을 알렸다.

이날 전시회에서 가칭 '밸런스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노약자 및 재활환자를 위한 무게중심 측정 및 게임을 개발해 전시한 의료IT공학과 정홍봉/최이주/이하림(2학년)씨는 "우리가 흔히 오락실에서 보는 슈팅게임을 하는데 손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압력판 위에 올라가 발로 무게중심을 이동해 겨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히며 "개발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요양원이나 재활병원에서도 쉽게 구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대전북부새마을금고 느티나무봉사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가져

대전북부새마을금고는 지난 13일 덕암나누미봉사회(회장 박희순)에 이어 지난 16일에는 느티나무봉사회(회장 김종숙)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지난 13일에 이어 16일에도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에서 1000여포기 김장을 통해 200여가정에 따뜻한 사랑이 듬뿍담긴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대전북부새마을금고 소속 봉사단체(덕암나누미, 느티나무, 푸르미봉사회)는 100여명의 봉사회원으로 구성되어 매년 삼계탕잔치를 비롯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고추장 및 김장김치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대전북부새마을금고 전영근 이사장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성어린 손길로 만들어진 김장김치가 지역내 사회적 약자에게 훈훈한 온기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충남대 '배달강좌'로 지역 소외계층 교육 지원

CNU 배달강좌 7개 프로그램 성황리 '배달 중'

충남대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CNU 배달강좌제'가 지역사회 교육 소외 계층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충남대 인근 유성구에 위치한 학교밖청소년지원기관에서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한국사 수업이 진행됐다.

여느 수업과 달리 이날 열린 한국사 강의는 충남대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임채정 학생(4학년)이 선생님이 되고, 피치 못 할 사정 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청소년들이 학생이 돼 2시간 동안 수업이 이어졌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부터 초 · 중학생까지 6명의 청소년들의 교육 과정은 다르지만 이 수업의 목표는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내년 1월 25일 있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지난 10월 1일 시작돼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지는 학교 밖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임채정 학생이 멘토로 활동하는 한국사를 비롯해 국어, 영어, 과학 등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 약 10명이 멘토로 활동하며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대는 이번 학기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를 조사해 CNU 배달강좌 7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교실, 북한이탈주민자녀를 위한 멘토링, 청소년을 위한 코딩 교육, 노인 생활체육 교육 등 지역 교육 소외 및 취약 계층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생 45명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충남대는 앞으로도 지역민의 수요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하기 위해 CNU 배당강좌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둔포면 '민원현장 방문의 날' 운영

부서장이 직접 현장 방문해 민원해결방안 모색

아산시 둔포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이문영)는 지난 8월부터 주 1회 현장 방문의 날을 지정하고 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민원해결방안을 모색하는『민원 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방문 대상지는 ▲소관 업무 관련 쟁점현장 ▲민원쟁점현장 ▲자연재해현장 ▲도로 · 교통 · 청소 등 반복적인 주민불편장소 등이며,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듣고 소관부서로 연결해 즉각적인 해결을 도모하며 건의사항은 면정에 반영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산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多) 어울림 야유회 중구 산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한현희)는 17일 20세대의 다문화가정 주민들과 함께 전주 한옥 마을을 다녀왔다.

육종명 공주경찰서장, 교통안전 특강 큰 호응 공주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지난 15일 초등학교 학부모 6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강연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육종명 서장은 공주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고, 헷갈리는 교통상식에 대한 안내로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대전현충원, 2018년 합동 소방훈련 실시 국립대전현충원(원장 권율정)은 지난 15일 장교제1 묘역 주차장에서 '2018년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동절기를 앞두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유사시 대응력을 함양하고자 대전현충원 자위소방대와 노은119안전센터간의 합동으로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아산소방서, 재난약자시설 관계자 소방안전 교육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 관련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양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위역량 강화 위한 워크숍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의용소방대는 지난 15일 대천파레브호텔에서 청양소방서장, 각 대별 의용소방대 간부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휘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전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우수기업 초청 업무협약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윤진)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지난 15일 지역내 제대군인 채용 우수기업과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 (주)대해(대표 김윤호), (주)티에스관리산업(대표 김선묵), (주)우길(전무이사 백영민), (주)성경식품(본부장 김동진), 청원산업(전무 하재학), 상원산업(주)(전무 하재학), (주)캠베이스(관리본부장 석용수)등 7개사와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세종시, 동절기 상수도 급수공사 중지

12월 5일까지 급수공사 신청 접수… 내년 3월 1일 공사 재개

세종시(이춘희 시장)가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1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상수도 급수공사를 중지한다.

이번 상수도 급수공사 중지 조치는 겨울철 기온 급강화로 인해 콘크리트, 아스콘 등 포장재료 결빙 등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지반 동결에 다른 굴착장비 및 작업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수도 공급이 필요한 주민은 12월 5일까지 급수공사를 신청하고 공사비를 납부해야 급수공사 중지 전에 공사가 가능하다.

내년 급수공사 신청은 2월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겨울철 기온 급강하로 인한 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 보호통과 수도관에 헌옷이나 스티로폼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치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온 급강하로 계량기가 동파될 경우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시설과(☎ 044-301-3022~7)로 신고하면 무상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세종=김태선기자

청양소방서, 2018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대형화재 근절하고 인명피해 최소화 군민들 안전 위해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화재발생이 빈번한 겨울철을 맞아 내년 2월까지 대형화재를 근절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군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18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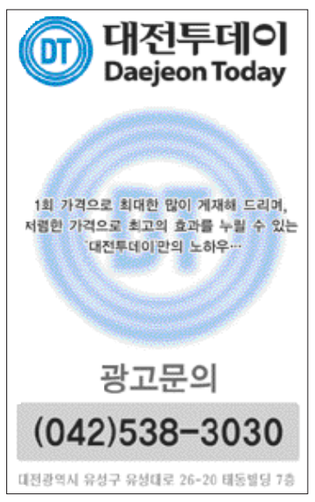
이번 대책은 전년도 동기대비 화재저감을 목표로 ▲차량 및 주방용 소화기 사용 홍보 등 대국민119안전운동 전개 ▲겨울철 화재 취약대상 안전관리대책 집중 추진 ▲대형화재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소방서는 기간 중 군민 공감형 화재 예방 · 홍보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소방관서와 주요 공공청사 등에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게시하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물을 송출하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 구급차 길 터주기 문화 확산 등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청양군의 지역적 특성 · 여건을 분석해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겨울철은 건조한 날씨와 화기 취급 · 사용이 늘어나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인 만큼 전기, 가스, 불씨 등을 사용할 때 화재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며 "소방서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예산소방서, 재난약자시설 관계자 교육 실시

재난약자시설 관계자 및 유관기관 소집교육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지난 15일 소방서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재난약자시설 관계자 및 유관기관 소집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재난약자이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겨울철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예산요양병원 등 예산군내 재난약자시설 30여 개 관계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겨울철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유사 화재발생 사례 설명 ▲주 · 야간 근무여건을 반영한 자위소방대 조직 구성 · 운영에 관한 컨설팅 ▲주 · 야간 화재안전 및 재난약자 대피유도 컨설팅 ▲컨설팅 체크리스트 작성 설명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소방특별조사 실시로 소방시설 작동여부 및 피난 대피로를 확인하고 소방안전 점검 시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명령을 취할 예정이다.

한영구 현장대응단장은 "화재발생 시에는 관계인의 초기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지속적인 훈련으로 자위소방대의 세부적인 임무지정 및 활동으로 현장대응력을 향상하여 대형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예산=양성업기자

대전소년원, 제6회 법무부 대전소년원 시화전 개최

문학적 정서함양 및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하고자

대전소년원 이영호 원장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대전청하문학회 및 (사)한국문학진흥재단에서 후원하는 「제6회 법무부 대전소년원 시화전」을 대전소년원 별관 의료학생 강당에서 개최하고 있다.

대전청하문학회 시화전은 대전소년원에서 재원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학적 정서함양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인 청하 성기조 선생의 「헤어지는일」등 43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대전청하문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대전소년원 소년보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선남 목사의 적극적인 개최의지를 갖고 추진하였다.

김선남 목사는 평소 대전소년원 학생들의 문학을 통해 정서순화를 도모하고 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문학 활동에 관심을 갖고 매년 문학특강 및 백일장 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대전소년원 이영호 원장은 "문화적 소외계층인 우리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좋은 시화전을 개최해 주신 대전청하문학회 회원분 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상범기자

보령소방서, 병원 등 재난약자시설 관계자 대상 간담회

보령시 보건소, 관내 병원 등 재난약자시설 20개소 관계자 대상

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지난 15일 오후2시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보령시 보건소, 관내 병원 등 재난약자시설 20개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민 · 관 협업을 통한 재난약자시설 화재예방대책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난약자시설에 해당하는 병원, 요양병원, 노인의료시설 등은 특성상 다수의 재난약자가 생활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민 · 관이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화재예방대책 방안 모색과 관계자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보령소방서는 재난약자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율적 소방안전관리 구축과 화재예방대책 방안 모색을 위해 ▲대상처 방문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훈련 협조 ▲각 대상처별 화재위험요인 사전 점검 및 방화순찰 강화 협조 ▲대상처별 반복적인 피난 · 대피훈련 전개 ▲시설 내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강화 요청 ▲인명대피용 물품 구입 비치 요청 등 재난약자 대상 맞춤형 화재안전기반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내용을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평소 시설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구축을 통해 평소 안전의식을 확립하고 각종 재난발생을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령=김태선기자

공주사랑나눔 밴드 결성

…늦가을 연주회 개최

공주준법지원센터(소장 조한경)는 음악적 재능을 소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공주사랑나눔밴드를 결성하고 오는 20일과 23일 노인 및 장애인시설에서 공연을실시한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편져지는 이번 연주회는지역 내 노인 · 장애인시설인 공주효센터(노인복지), 공주명주원(장애인복지)을 방문해 감미로운 음악 연주와 노래를 통해 소외된이웃에게 사랑과 관심을 전할 목적으로, 오카리나 독주, 피아노 및 기타, 드럼 합주를 통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며, 신나는노래와 율동을함께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게 될 것이다.

공주=정상범기자

아산시,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아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장 오세현 아산시장)를 지난 15일, 2층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지역치안협의회는 오세현 아산시장, 김보상 아산경찰서장 등 주요기관장을 비롯한 치안분야 전문가 및 사회단체장 16명의 위원과 실무위원 18명 등 총 34명이 참석 회의를 진행했다.

진행은 위원 위촉장수여를 시작으로 아산경찰서의 치안과 관련한 2018년 아산시 치안지표와 역점시책, 방범용 CCTV카메라 개선사업 추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추진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 과장의 발표 이후 지역치안을 위한 각종 제안 및 우수사례 등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세현 시장은 "아산시는 나날이 성장하는 도시로서 치안환경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민 · 관 · 경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치안체계 구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아산, 행복한 아산을 만드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산시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역기관장 및 사회단체장등 20여명으로 구성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회를 거쳐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의료취약계층 결핵검진' 실시

무료진료소 희망진료센터, 결핵협회 창립일 기념

무료진료소 희망진료센터(이하 진료소)는 결핵협회 창립일(11월 6일)을 기념해 대한결핵협회 대전 · 세종 · 충남지부와 연계해 지난 15일 오후 대전역 인근 의료서비스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과 쪽방생활인들을 대상으로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기 위한 결핵검진을 벧엘의집 옆 노루표 페인트 주차장에서 진행했다.

결핵검진은 흉부 X-선 검진 장비를 탑재한 이동검진 차량에서 촬영한 후 의사가 즉시 판독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남자 142명, 여자 39명 총 181명이 검진을 받았다. 다행이 검진 시 결핵 유소견자가 없었으나 추 후 자세한 검진 및 객담 도말검사 결과, 결핵으로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에 통보되어 2차 검진을 실시하고 결핵환자로 판명 시 보건소와 연계해 등록 관리 및 치료를 하게 된다.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쪽방생활인들에게 결핵 검진을 진행함과 동시에 중부소방서에서 나와 안전한 겨울을 지낼 준비로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사용법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다. 송병배기자

진학상담 문화체험 등 수능 후 프로그램 시작

충남교육청, 도내 교육지원청과 유관기관 함께 집중 생활지도 실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앞으로 12월까지 2019학년도 수능 이후와 학년말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각급학교에 전파했다.

이번 대책은 수능이 끝나고 자칫 학생들의 생활이 느슨해질 것을 대비해 지역과 연계한 순찰활동, 수험생 심리적 안정, 학생들의 일탈행위 예방 등이 포함됐다.

수험생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집중적인 상담과 함께 성적 비관 학생 등 위기 학생 조기발견 즉시 지역 내 전문기관(Wee센터 등) 연계해 활발한 상담과 함께 학부모와 함께하는 치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 · 군 자치단체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연계해 취약지역 · 시간대 순찰 및 단속 강화하고 방과후 활동과 체험학습 시에도 순찰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일부 학생들의 일탈행위 예방을 위해 학생 아르바이트 현황 파악, 오토바이 탑승 금지 및 교통안전교육(헬멧 착용 등),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연계한 도박 금지, 사이버폭력 예방, 학생흡연과 음주, 지각 · 조퇴 · 결석 학생에 대한 상담 강화 등 활발한 생활지도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수험생들을 위해 각 학교 상황에 맞춰, 문화예술 발표회, 선진지 견학, 미래 직업 체험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유명한 인사를 초청하여 그동안 접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된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학생들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 학생들도 자신을 사랑하고 꿈을 키우는 중요한 시간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당진교육지원청, 수능시험 후 합동 생활지도

당진시내 청소년 선도 위해… 민 · 관 · 학 합동 진행

당진교육지원청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난 15일, 당진시내에서 청소년 선도를 위한 합동 생활지도를 실시했다.

이날 생활지도는 민 · 관 · 학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당진교육지원청 · 당진경찰서 · 당진시청 · 당진 녹색어머니회 · 엄마순찰대 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7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2개 조로 나누어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귀가지도를 실시했고, 청소년 출입업소 주인들에게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한 홍보물을 나눠주며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시켰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수능시험 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탈선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해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 =최근수기자

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 위탁교육 수료식 대전지방보훈청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오후 각각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끌레르평생교육원에서 '경비지도사' (사진)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청남직업전문학교에서 '조경기능사' 교육과정 수료식을 실시했다.

서산 차동초, 이중언어말하기 발표회 개최

서산 차동초(교장 박태규)는 이중언어말하기 발표회를 열어 이중언어에 관심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학기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중언어말하기 실력을 선보였고, 2학기에는 비다문화가정 학생도 참여하여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등을 한국어와 함께 하는 발표회를 가졌다.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 학생들은 이중언어 강사 선생님과 한국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원고를 작성해 연습을 병행했다. 차동초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자신감과 정체성을 높이고, 비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다양한 언어를 접하여 세계관을 넓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산 =김정한기자

공주 상서초 '충청권 교육혁신 한마당' 참여

2018 마을과 학교의 콜라보! 행복 상서마을교육공동체

상서초등학교(교장 윤복자)는 지난 17일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계당관)에서 충청권 교육청(대전,세종, 충북, 충남)이 주최하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018충청권 교육혁신 한마당"에 참여했다.

상서초등학교는 '2018 마을과 학교의 콜라보! 행복 상서마을교육공동체'라는 타이틀을 바탕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역사회와 함께 꾸려가고 있다.

'마을이 학교로'라는 소주제에는 마을서당,승마교육, 사물난타, 주말 텃밭 등이 있으며, '지역사회연계교육에서는 백제마라톤 참가, 신년 해맞이, 백제문화제방학 캠프 등이 있으며, '학교가 마을로'에서는 지역민 컴퓨터교실, 노인정 봉사활동, 효 체육의 날, 영어Festival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상서초 마을교사로 활동중인 '새소리농장'에서 함께 해 부스에서 동물 체험을 하며 지역민 마을교사와 함께 만든 떡 체험도 진행했다.

윤복자 교장은 "상서초는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소개할 것이며, 앞으로도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 =정상범기자

아산교육지원청, 발도르프교육 워크숍

'발도르프교육과의 새로운 만남' 주제로 수업혁신 워크숍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은 지난 16일, 17일 이틀 간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발도르프교육과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주제로 공립유치원 교원 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업혁신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 날 워크숍은 김훈태 강사의 '슈타이너 사상과 발도르프교육'에 대한 기조강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사람의 기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로 나누고 아이들이 기질에 따라 어떤 성격을 보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후 김규미 강사의 '유치원의 하루일과에 적용해 보는 발도르프교육'과 서남숙 강사의 '감각발달을 돕는 모둠놀이'가 분임별로 진행됐으며, 하루의 리듬을 노래와 시로 지내기, 감각을 활용한 모둠놀이 등을 직접 해 봄으로써 발도르프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체험해 보는 시간이 됐다.

이심훈 교육장은 "워크숍이 수업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상호 의견을 나누며 수업의 질이 향상되는 좋은 디딤돌이 되었다. 모두에게 희망 주는 행복한 아산교육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아산 =리량주기자

충청권 교육청 및 독립기념관과 업무협약

세종시교육청, 3 · 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공동사업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17일 독립기념관(관장 이준식,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에서 충청권 4개 교육청(세종 · 대전 · 충남 · 충북) 및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3 · 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해당하는 2019년을 맞이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충청권 교육청과 독립기념관이 함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사업은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5개 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며,주요 내용으로는 ▲독립운동역사교육 한마당 ▲독립운동역사동아리 탐방 활동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 ▲미래 100년 학교문화개선 공동캠페인 ▲체험교구재 보급 등 5가지 사업이 포함됐다.

세종시교육청을 비롯한 충청권 교육청과 독립기념관은 이번 공동 기념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세계 평화와 통일 조국을 향한 올바른 역사 인식 및 민주시민성을 더욱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순국선열의 자유 · 독립 · 인권 · 평화의 정신을 계승하고 새롭게 열어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태선기자

대전교육청 좋은인재기르기협력단

초 · 중학교서 활동할 봉사자 모집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11월 21일까지 좋은인재기르기협력단 재능기부사업의 일환으로 초 · 중학교에서 활동 할 대학생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여하는 대학생 봉사자는 겨울방학기간 중 희망하는 초 · 중학교에서 학습지도, 독서지도, 방과후학교 업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며, 봉사활동 완료 후 희망자에 한해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봉사활동 신청자격은 대전 · 충청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봉사활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모집안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학교 및 교육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지난 여름방학동안 초 · 중학교 40개교에서 대학생 63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학교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능기부 활성화를 통해 대학생에게는 지식과 재능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아이키우기 좋은 청양 만들기 간담회

청양교육지원청, 김지철 교육감 · 김돈곤 청양군수 간담회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청양군청 상황실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김지철 교육감, 김돈곤 청양군수, 윤주역 교육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산,인구절벽시대를 대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자치단체와 함께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3대 무상교육인 ▲고등학교 무상급식, ▲무상교육, ▲중학교 무상교복 등 지난 7월 충청남도청과 교육청의 업무협약 체결 한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과 ▲청양 행복교육지구 추진, ▲지역기반 초등 돌봄공동체 구축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확대 등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청양교육 발전을 위해 청양군에서 충남 최초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과 돌봄 및 방과후학교 등 여러 부분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였고 청양교육지원청과 청양군청의 협업을 통한 청양교육의 상생을 부탁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지역 주민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

선문대, 학생과 지역주민 대상… 매년 작은 음악회 열어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는 지난 15일, 대학 내 중앙도서관에서 '제4회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문대는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이 책만 대여하는 곳이 아닌 문화와 예술의 복합 공간이자 쉼터의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매년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왔다.

이날 공연의 시작은 국악 앙상블로 우리에게 익숙한 팝송인 'Hey Jude', 'Let It Be' 등의 비틀즈 메들리와 '고향의 봄', '오봉산 타령' 등이 공연됐다.

아산 =리량주기자

보령교육지원청, 초등 6학년 진학담당자 연수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는 16일, 15시에 제1회의실에서 2019학년도 중학교 배정 시행계획 등을 안내하여 배정 업무를 효율적 추진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진학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동 정●●●

우정의 리셉션

양승조 충남도지사= 19일 오후 6시 온양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충남-구마모토 자매결연 35주년 기념 우정의 리셉션'에 참석.

재해복구센터 신축공사 기공식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19일 오후 2시 조치원읍 서북부 도시개발지구에서 열리는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센터 신축공사 기공식」에 참석.

충남도 내수면 불법어업 합동단속

충남도는 11월 19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지도·단속은 서해어업관리단의 협조를 받아 충남도, 시·군 등 관계 기관과 각 지역 내수면에서의 불법 어업행위 우범지역을 위주로 동시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유해어업의 금지 위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등이다.

또 △회유성어류 등의 통로방해 금지 위반행위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불이행 △ 유어행위 등 제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키로 한다.

충남도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이 해상뿐만 아니라 내수면의 수산자원보호 및 준법 조업 등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준 충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어업인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구 기자

선후배공무원 멘토링 교육 실시

예산군이 15~16일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섬김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선후배공무원 멘토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신규공무원의 원활한 공직생활 적응과 선후배공무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1기와 2기로 나눠 진행된 교육은 임용 1년 이내의 신규공무원과 7급 이상의 선배공무원 등 108명이 참석해 교육에 임했다.

교육은 팀빌딩, 커피 인문학, 친목의 시간, 군수님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인 만큼 참여자들의 열정적인 자세로 활기찬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황선봉 군수는 "이번 교육이 선배공무원과 후배 공무원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고 신규 공직자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예산군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더 행복한 충남 실현 함께 힘 모은다

도 정책자문위 정기회의 개최… 공약과제 추진 방안 공유·토론

충남도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기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민선7기 공약과제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승조 지사, 김겸훈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도 실·국·원·과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우수 활동 위원 감사패 및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민선7기 도정 운영 방향 및 공약과제 보고, 도지사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감사패는 김희경 복지보건분과장(공주대 간호학과 교수)과 전승수 해양수산분과장(전남대 지구환경공학부 교수) 등이 분과 운영 및 정책 제안 활성화 공로로 받았다.

신규 위원으로는 배윤주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와 최선기 백석문화대 교수 등 23명이 위촉됐다.

이어 이필영 도 기획조정실장이 도정 비전과 5대 목표, 20대 전략 등 민선7기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또 11대 분야 41개 중점과제, 1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공약실천 계획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제언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저출산 현황 및 문제점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며, 도의 저출산 극복 노력을 소개했다.

양 지사는 "국가에서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저출산 극복 정책을 도에서 한다고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말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지금 당장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정책자문위 위원들께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도적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 지사는 이어 "민선7기 충남도정 비전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양질의 삶을 누리는 충남을 구현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발돋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라는 3대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 하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책자문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출범한 도 정책자문위원회는 이론 및 현장 전문가 142명으로 구성됐으며, 출범 이후 현재까지 도의 핵심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김성구 기자

"농업정책국 허위보고 의혹 진상 밝혀라"

아로니아 총연합회, 분말 대량 수입으로 수확 포기 농가 속출

아로니아 농가들은 2018 FTA 피해보전직불제 예산 2000억원이 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로니아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더욱 실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로니아 총연합회는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정문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국에서 진행한 '아로니아 FTA 피해직불제 발동 제외'는 열매 상태로는 먹지도 않는 생과일로 수입량을 측정했으며, 이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아로니아는 과일 속성상 분말과 생과 사이의 직접 대체관계가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농업정책국은 애써 이 같은 예외적 사실을 무시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총연합회는 "아로니아 분말과 농축액, 건과 등의 수입량을 측정·합산해야 정당한 것이며, 사실상 이와 같은 수입량은 분말 하나 품목만으로도 FTA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에 넘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농가들은 농업정책국의 허위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농업정책국이 수입 분말은 지원요건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자가 있는 것처럼 문건을 적시했으며, 한·터키 FTA발효일('13.5월) 이전 농가수 492로 적시해 보고했으나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1318로 확인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로니아 생과 가격하락은 FTA체결로 인한 수입량(분말 하나만으로로 '17년 국내생산량의 37%)으로 피해를 입어 FTA피해보전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량 급증으로 수급조절이 우선인양 이해할 수 없는 보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농가들은 이 같은 농업정책국의 부당한 행위와 허위보고에 의해 아로니아 재배농가는 죽어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그 진상을 하루속히 밝히고 즉각 FTA 피해보전 직불제를 실현 조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구 기자

세종시 어르신 사고 부담 줄인다

경로당 재산종합보험·가스배상보험 가입

세종시가 지역 어르신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경로당에서 발생할 사고에 따른 개인부담을 덜어준다.

시에 따르면, 경로당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인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모든 경로당에 재산종합보험(책임배상보험, 화재보험) 가스배상보험에 11월 16일자로 일괄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은 전체 경로당 468개소('18.09기준)가운데 책임보험은 이미 가입된 139곳을 제외한 329개소, 가스배상보험은 전체 468개소에 대하여 가입했으며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비용을 절감했다.

이번 보험가입으로 이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내년 11월15일까지(1년)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신체 상해와 재물손해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사고 때 대인은 1인당 최대 1억원, 사고당 5억원까지, 대물은 사고당 1,500만원까지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험가입 의무가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그동안 비용 부담과 가입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보험을 가입하지 못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종합보험가입으로 경로당 내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해 어르신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외에도 전기·가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태선기자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힘쓸것"

양승조 지사, 천안 청소년 두드림 페스티벌 참석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7일 천안 삼거리 공원 일대에서 열린 '2018 천안 청소년 두드림 페스티벌'에 참석, 행사 개막을 축하했다.

천안 지역 청소년과 시민 등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안 청소년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사생대회, 대학생 락(樂)페스티벌, 길거리 농구대회, 풋살대회,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초대가수 공연 등으로 18일까지 2일 동안 진행된다 .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청소년의 행복과 희망은 충남의 행복이자 희망"이라며 "많은 청소년들이 숨겨둔 끼와 재능을 펼치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충남도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특기와 창의 뒷받침하고, 청소년들의 미래를위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힘쓸 것"이라고덧붙였다.

예산군 대한민국 안전대상 수상

예산군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화재 재난 예방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상 부문 특별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안전인증원이 주관하는 '제17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132개 기업, 단체, 개인이 신청해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던 이번 안전대상은 안전관리 우수 기업과 단체, 개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17년간 신청 기업이 1400개소에 이르는 국내 안전 분야 최고의 상이다.

군은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119안전센터 미설치 면지역을 대상으로 소화기 보급사업을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해 올해까지 관내 2만 6400여 가구에 소화기를 보급했고 전국 최초로 전 가구에 소화기 보급을 완료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완료, 다목적 화재진압차량 구입 지원, 예산군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 데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자치단체로서는 최고의 상인 단체상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황선봉 군수는 "화재로부터 군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는 전 가구 소화기 보급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됐고 내년에는 전 가구에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원해 화재 없는 안전한 예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예산=양성업기자

세종시 역량강화 워크숍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춘희)는 15일과 16일 양일간 협의회 위원, 기업의 노조위원장과 인사·노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 한옥마을에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노사민정협의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노사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초청강의, 분임토의, 통합분과회의 등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한국노총 정명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내년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방향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첫날에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박사와 스펀지교육연구소 성원숙 대표 등이 초빙강사로 나서 다른 지역의 선진사례를 소개하고, 소통을 통한 노사민정의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이어,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노사화합 한마음 행사 추진 방안'을 주제로 분임별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둘째 날, 통합분과회의에서 모든 참가자들은 노사민정 활성화 방안과 역할을 논의하는 등 노사민정 상생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협의회가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협의체로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파트너십을 더욱 돈독히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포럼분과에 참여한 홍익대학교 육윤복 교수는 "협의체가 아직 기반을 다지는 초기 단계인 만큼 통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당부를 전했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효 대전사무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세종시 노사민정 각 주체들이 함께 협의회를 이끌어 간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기본을 되새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위원들 모두 노사민정 발전을 위해 더 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라고 참가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김태선 기자

daejeontoday.com

세종맘카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세종시 저소득 가정 30가구 총 150kg 전달

맘카페 회원들이 엄마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 김장김치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세종 나눔리더스클럽 2호 회원이기도 한 세종맘카페(회장 정연숙)는 지난 16일 오전 세종시 장군면 한 농가에서 맘카페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전개했다.

이날 정성껏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홍영섭)를 통해 관내 저소득가정 30가구에 5kg씩 총 150kg이 전달될 예정이다.

정연숙 맘카페 회원들은 "회원들의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겨울철 가장 필요한 김치를 만들어 세종시 관내 저소득가정에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투명하게 전달되게 되어 맘카페 회원들이 더 좋아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병배 기자

충남도 농업용수 확보 사업 박차

33개 사업 40억 투입… 양수·저수지 준설 등 추진

충남도가 내년 가뭄에 대비, 일찌감치 농업용수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내 898개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15일 기준)은 92%로, 평년 수준(71.8%)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청양지역 저수지가 98.1%로 가장 높고, 금산 96%, 태안 95.9%, 아산 95.6%, 당진 95.4% 등으로뒤를이었다.

담수호는 간월호가 116%, 대호호 100%, 삽교호 82.3%에 달해 내년 봄 모내기 급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7~8월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가을 가뭄에 시달릴 수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올해에도 급수가 개시되는 4월 30일 기준 저수율이 100%로 농업용수 상황이 넉넉했지만, 7~8월 50여일 동안 가뭄이 닥치며 가을용수난을 겪어야만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도는 최근 15개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12개 지사를 대상으로 가뭄 피해 취약 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 대책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33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15일 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천안 지산저수지와 논산 소중저수지 등 저수지 5곳을 대상으로 6만 6000㎥ 규모의 준설을 추진한다.

또 24곳에 양수 및 급수 시설을, 3곳에 저류조를, 1곳에는 수문을 설치한다.

사업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총 817㏊의 농경지에 대한 용수 공급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박병희 도 농정국장은 "도내에서는 최근 몇 년 간 가뭄 발생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용수 확보 대책 사업 추진은 혹시 닥칠지 모를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각 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해 내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가뭄 극복은 용수 개발도 중요하지만, 절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한 만큼, 논물 가두기와 집단 못자리, 간단관개 등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성구 기자

동정

최종보고회

김홍장 당진시장=19일 오후 2시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주재.

중간보고회

가세로 태안군수=19일 오후 3시 30분에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채석포권역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

청소년문화축제

김돈곤 청양군수=19일 오전 11시 정산면 정산향교 기로연에 참석한 후 오후 2시 청양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는 제7회 청양군 청소년문화축제에 참석.

'다함께 만들어 나가는 면정'

목면, 이·반장 연석회의 열려

청양군 목면(면장 황우원)은 지난 15일 면사무소에서 14개 마을이장 및 반장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부군수가 방문해 인구 증가에 대한 당부말씀과 더불어 인구증가 시책을 직접 홍보했으며,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 및 영농폐기물 수거, 가을철 산불 조심 등의 각종 협조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올해 목면 시책사업인 지곡리 공적비 및 송덕비 이전, 목면지 증보 발행에 대한 진행상황 설명과 함께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인 권흥규의사 특별제향, 마을자치회 구성 추진계획, 분야별 면정 홍보사항을 설명을 한 뒤 반장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유익한 시간도 가졌다.

황우원 면장은 "면정에 늘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이·반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더 자주 뵙고 이야기를 나누어 목면 면정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안흥성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

태안군, 역사적 가치 회복·재현행사 발굴 등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할 계획

태안군이 안흥성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선다.

군은 지난 15일 군수실에서 가세로 군수, 관련 실·과장, 용역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흥성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및 태안읍성 도문화재 지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안흥성은 조선시대 왜구 침입을 막고 서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군사적 요충지이며, 특히 조선시대 중국의 사신을 영접하던 곳으로 지난 2006년, 2012년 발굴조사를 진행해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용역을 맡은 ㈜HK건축문화유산연구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안흥성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해 ▲기초자료 조사 및 학술자료 조사 ▲유적현황 조사 및 분석 ▲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비체계 설정 ▲토지이용계획, 배치계획, 동선계획 수립 ▲관리·운영 및 활용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안흥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과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해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고 재현행사 발굴 등을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태안읍성의 도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안흥성의 역사·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충청유교문화권사업과 연계해 안흥성이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당진의 풍경과 역사가 담긴 고시(古詩) 집 발간

목은 이색 작품부터 하강 박제경에 이르기까지 19인 고시 수록

당진시가 옛 선인들의 글을 통해 당진의 옛 모습과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고시(古詩) 집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광현 문화재팀장이 직접 번역한 이 책은 고려말 조선초 목은 이색(1328~1396)부터 조선 중기 구봉 송익필(1534~1599), 오산 차천로(1556~1610), 동악 이안눌(1571~1637), 조선 후기와 구한말 운양 김윤(1835~1922), 하강 박제경(1831~1910)에 이르기까지 19인의 고시를 수록해 당진의 옛정서와 풍경, 시대적 배경을 담았다.

이중 고려 후기 문신이자 고려 3은에 속하는 이색의 작품 '면주(沔州)의 미선(米船)이 당도하다'라는 글은 이색이 면천지역에 왕실로부터 봉액받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려 말 왜구의 노략질로 인해 면천의 쌀을 애타가 기다리는 마음을 읊고 있어 내포평야가 사대부와 왕실의 중요한 경제적 바탕이 됐음을 짐작케 한다. 이색이 이 작품을 지었을 당시 1350년부터 1392년까지 충청도 지역 왜구침입 횟수는 모두 58회에 달한다.

청천당 심수경(1516~1599)은 면천 반월루라는 고시를 남겼는데, 반월루는 면천 관아의 삼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1851년 경 반월루가 퇴락하자 당시 이관영 군수가 다시 짓고 풍락 루라 명명한 역사가 있다.

남광현 팀장은 "당진의 고시는 지역적 특성과 인물이 맞물려 당진을 역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발간했다"며 "우리 고장을 다녀갔거나 인연이 있는 시인 문객들의 문집에서 당진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온양5동 어르신 겨울나기 보양식 전달 행사 가져

아산시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공동단장 김오직·강연식)은 지난 15일, 행복키움추진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동절기를 맞이하여 온양5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현 사업의 일환으로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 어르신 겨울나기 정성가득한 보양식 전달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동절기 외롭고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자 아산시자원봉사센터 온양5동 거점센터에서 예산100만원을 지원 받아 어르신 가가호호를 방문해 보양식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은 정기회의를 통해 취약세대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및 동절기 특별 보호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정기회의를 마친 후 홀몸어르신 25세대에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메뉴는 한우불고기, 사골국 등이며 추진단 단원들이 전날부터 음식을 손질하고, 사골을 직접 고아 정성을 담아 만들었다.

신옥희 센터장은 "동절기 보살핌이 더욱 절실한 세대에 보양식 음식을 대접해 드릴 수 있어 기쁘다. 봉사를 위해 이틀 동안 행복키움 단원들이 고생했는데 음식을 받고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얼굴을 보니 사랑과 온기가 담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건강하게 올 겨울을 나셨음한다."고 말했다.

강연식 공동단장은 "2018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며 동절기 특별 보호 대책으로 저소득세대 어르신 겨울나기 보양식전달 봉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봉사를 위해 애써주신 단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보내기길 바란다. 단원들이 봉사해 주심에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염치읍 행복키움 어르신 섬김잔치 실시

아산시 염치읍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임동희)은 16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건강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독거어르신 섬김잔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추진단의 협약업체인 강청골가든 아산점(대표 박옥연)의 후원으로 관내 독거어르신 40여 명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무지개주유소(대표 송대영)에서 직접 마련한 후원물품 양말을 전달했다.

행사에 참석한 조○○어르신은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이렇게 좋은 음식과 따뜻한 선물까지 주니 더없이 좋다. 항상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 예쁜 양말 신고 추운 겨울 잘 이겨 내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임동희 단장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 섬김 잔치로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어르신들이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점심후원을 해주신 강청골가든과,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준 송대영 위원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효근 읍장은 "바쁘신 와중에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에 동참해주신 추진단원들과 강청골가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 기후변화적응대책 용역 최종보고회' 열려

태안군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비해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적극 나선다.

군은 지난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 관련 실·과장, 자문위원, 용역사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1월부터 충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주)에서 수행한 이번 용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분석을 통해,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 수립을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더 나은 내일을위해 적응하고 준비하는 태안'이라는 비전으로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농축산, 산림·생태계, 해양·수산업 등 6대 분야별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건강분야에서 ▲감염병 관리 및 대응체계 확립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등이 제시됐으며, 재난·재해 분야에서는 ▲재난문자 알림 서비스 확대 ▲재난체험형 군민 안전교육 등이 신규사업으로제안됐다.

또한 물관리 분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태안하수처리시설 증설 ▲우수관 정비사업, 농축산분야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 ▲조사료특화단지 육성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도 산림·생태계 분야에서는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해양·수산업 분야는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연안 및 어항 정비사업 ▲적조피해예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분야별 과제와 자문내용을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 기후변화로 인한 군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우/리/동/네

출산지원금 대폭 확대됐다

당진시, 2018년 1월 1일생부터 소급 적용

지난 10월 29일 당진시의회에서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된데 이어 이달 15일 공포돼 당진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이들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대폭 확대됐다.

이 조례에 따라 첫째 아는 50만 원, 둘째 아 100만 원, 셋째 아 500만 원, 넷째 아 이상 1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게 됐으며, 육아용품 지원 금액도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다.

당초 당진시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 공포 이후 변경된 출산지원금을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들이 건의한 소급 적용을 받아들여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까지 확대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에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출산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12월 중 기존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을 일괄 지급키로 했으며, 11월 이후 출생한 아이들은 제정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 작성 후 지급한다.

육아용품 교환권도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11월 생 이후부터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지원하며, 올해 1월부터 10월생까지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를 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환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당진시는 소급적용을 받는 아이들의 가정에 출산지원금과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관련 안내문을 송부해 변경 지급되는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돌아다니며 행복 나눠드립니다"

청양군 치매안심센터, 마을순회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청양군(군수 김돈곤) 치매안심센터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청양군 관내 마을을 순회하며 치매예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즐거운 인생'을 운영한다.

즐거운 인생 프로그램은 대상자에게 인지기능 및 정서기능 자극을 통한 신체활동을 제공해 삶의 활력과 성취감을 주고 신체적, 심리적 건강능력 향상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9일부터 시작해 4주간 3개 마을(정산면 광생리, 목면 본의리 및 대평리)에서 지역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세부프로그램으로는 치매예방 스트레칭, 뇌신경체조, 미술치료, 치료레크레이션 등이 있다.

현재, 청양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및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청양군치매안심센터(940-4553)로 하면 된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

아산시는 지난 15일,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등록 야영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겨울철 화재위험 등에 대비해 야영장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영장 사업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연 1회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사업자 전원이 참석해 안전의식 함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육은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 등 이론교육을 통한 야영장 안전관리 방법과 화재예방 및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요령 등 비상상황 대응에 관한 실기 교육을 병행 실시해 교육 효과를 더욱 높였다.

시는 이번 안전교육이 야영장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현장 중심의 야영장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야영장 관리 주체인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민선7기 공약 군민의 눈으로 살핀다

부여군, 주민배심원 위촉식 · 1차회의 열려… 공약 수립 등 심도 있게 논의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16일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에서 주민배심원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검토를 위한 주민배심원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선7기 공약의 확정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공약의 직접 수혜자인 군민 중심 배심원단을 꾸렸다.

공약의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수립과 집행의 불일치 해소와 조정이 필요한 공약에 대한 개선안 제시 등 정책의 수립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군민의 직접참여 확대를 실천하고 있다.

주민배심원단의 선정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 지난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19세 이상 부여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ARS와 전화면접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했고, 나이 · 성별 · 지역을 고려한 인구비례에 맞춰 무작위 추출로 주민배심원단 총 40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위촉된 주민배심원단은 2차 회의(11.30), 3차 회의(12.14)를 통해 수립한 5대 분야 81건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공약의 적절성, 이행가능성,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 검토해 공약사업을 확정해 군민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주민배심원단에서 논의한 공약은 12월중 군의회와 소통하고 공약을 확정해 민선7기 부여군정에 가속을 더할 전망이다.

부여=김성구기자

주홍빛 보석이 주렁주렁, 달달하게 익어가는 양촌 곶감

햇살이 좋아 햇빛촌이라 불리는 논산시 양촌면 일원은 가을이 깊어가면 집집마다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곶감내음으로 달달해진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민 함께 만든다

논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중간보고회 열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15일 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 및 주민공청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보장분야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기본 방향,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에 대한 최은희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로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4기 계획은 시민의 욕구와 민선 7기 시정방향을 토대로 ▲시민참여형 복지공동체 구현 ▲ 촘촘한 지역사회돌봄 실현 ▲복지서비스 전문성 강화 ▲사람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등 4대 추진전략 19개 세부 사업을 설정했다.

이어서 신기원 신성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원식 금강대학교 교수, 박순우 공주대학교 교수, 차경선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안성률 논산시 정책보좌관이 함께 토론하며 질의응답 및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주민공청회, 공고, 행정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23일 대표협의체 심의 ·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민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 시행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 국제 우호교류 협약식 체결

몽골 바양골구 공동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실시

충남 서천군은 국제 우호교류국인 몽골의 바양골구 살던어던토야 구청장 일행이 서천군을 방문 중인 가운데 실질적인 우호증진과 공동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제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다.

이날 서천군청에서 노박래 서천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바양골구 살던어던토야 구청장 일행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협력과 상생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 동반자로서 양 도시의 성공적인 교류를 위해 협약했다.

주요 협약은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입 · 출국 보장을 위하여 행정적 상호 협력▲원예 · 특작 농업기술 보급 및 교류 등 농업 발전에 관한 사항▲양측의 학생 대상으로 문화탐방을 위한 "해외 글로벌 캠프" 운영 ▲몽골에 진출하는 서천기업에 대한 "AGRO PARK" 토지 제공과 각종 협력 ▲양측 농업인의 교환 방문 및 연수 ▲농 · 어 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에 따른 행정 지원 협력 ▲기타 경제 · 문화 · 예술 등 상호 지역발전 증진을 위한 교류에 관한 사항에 합의했다.

바양골구 살던어던토야 구청장은 "서천군과 바양골구가 국제교류를 시작한 이래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업무외 모든 분야에서 많은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향후 긴밀한 교류를 통해 양 지역간 주민의 이익 증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말했다.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논의 자리 마련

계룡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안일선 부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실 · 과장, 용역업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사업의 추진방향 등 내실있는 사업 추진 및 급증하는 산림휴양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향한리 산50-1번지 일원 50㏊이상의 면적에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하여 건강증진과 치유기능을 극대화한 시설물을 배치하고 차별화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축제 개최시기에 맞춰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 시설,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 콘텐츠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치유의 숲 기본방향 및 컨셉 ▲공간별 지구계획 ▲숲길 동선 ▲치유센터 건축디자인 및 공간배치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안일선 부시장은 "연말까지 수정 · 보완을 거쳐 향적산 치유의 숲에 대한 맞춤형 개발과 향적산 브랜드화 및 홍보 마케팅을 통해 친환경 공간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논산시농기센터 무인멀티콥터(드론) 전문 자격취득자 배출

제 1호 드론전문자격 취득 · 농업인 교육 기술전수 가능해져

논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익희)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천성철 직원이 논산시청 1호로 무인멀티콥터(드론) 전문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천성철 직원은 꾸준한 자기노력으로 자가정비 능력을 키워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했을 뿐 아니라 드론 조종사에도 도전한 결과 값진 자격증을 따냈다.

무인멀티콥터(드론)은 차세대 농업용 예찰과 방제를 위해 부각되고 있는 기술로 미래 농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센터는 현재 현장실습을 위한 방제용 드론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전문 자격자를 배출함에 따라 내년부터 농업인 드론 전문반을 운영해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농업기계팀장의 농기계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을 시작으로 농업기술 전문화를 위한 직원들의 학습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며 "미래농업준비를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교육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천안지역 내 14개 보건(지)소 접종 가능

천안시 감염병대응센터는 올해부터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대상자는 천안시민 중 195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역 내 14개 보건(지)소에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을 위해서는 보건(지)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과 수급자증명서(※ 방문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를 반드시 지참해야한다.

대상포진은 신경절을 따라 홍반성 구진이 수포로 변하며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질병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연령층에게 취약한 질병이다.

하지만 대상포진 백신은 약 18만 원 정도의 고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해 보건소는 시민 요구를 적극 반영해 이번 무료 접종을 실시하게 됐다.

올해는 사업 첫 해로 약 1300명만 지원 가능한 점을 고려해 선착순으로 접종하며 이에 따라 백신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접종 기회를 주지 못하는 점이 아쉽지만 미수혜자는 2019년 상반기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1회 접종만 권장되므로, 병(의)원에서 유료 접종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이 불필요하며, 관련 문의는 동남구 예방접종실(521-5033) 또는 서북구예방접종실(521-5933)로 연락하면 된다.

한국관광공사 11월 걷기여행길로 백마강길 추천

늦가을 백제의 혼 서린 금강 일대 충남 부여 백마강길 속으로 풍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늦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11월 걷기여행길 6곳 중 부여 백마강길을 추천했다.

부여 백마강길은 금강 유역에 형성된 트래킹 길로 부여군 북쪽, 백마강 유역을 따라 부산, 부소산성, 궁남지 등 명소를 따라 걸을 수 있어 많은 여행자에게 큰 인기다.

백제보가 자리한 금강문화관 일대에서 시작해 서쪽 부소산성까지 걷는 백제보길은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다. 4계절 다른 물빛을 보여주는 백마강과 강변 주변 수목들의 자태는 성큼 다가온 겨울을 아쉬워하듯 옅은 초록빛을 띄고 있다.

백마강 유역 수변공원 따라 약 4㎞ 코스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백제보길을 걷다보면 부소산성을 마주하게 된다. 산길을 따라 낙화암, 사자루, 반월루 등을 함께 둘러보면 알찬 트래킹 코스가 완성된다.

특히 11월초 '제2회 워킹페스타인 백제' 행사개최 코스인 유네스코 백제역사지구인 관북리유적지, 부소산성, 궁남지 코스는 늦가을 울긋불긋한 단풍과 백제의 향기를 음미할 수 있다.

부여 백마강길 전체는 24㎞로 10시간이 소요되는 여행길이다. 부소산길에서 시작해 백제보길, 백마강 건너 천정대길, 문화단지길, 왕흥사지길, 부산길, 희망의 숲길을 걸은 후 백제대교를 건너 선화공원길, 궁남지길, 구드래조각공원길로 끝난다.

이 밖에도 부여에는 사비길 코스도 있는데, 전체거리는 28㎞로 백마강길보다 더 길다. 사비길은 부여 세계유산을 다 볼 수 있는 코스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신동엽생가, 궁남지, 능산리사지, 국립부여박물관, 정림사지, 부소산성, 구드래조각공원을 둘러보는 길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11월 걷기 여행 백마강길'은 청량한 가을 하늘과 신선한 청정공기를 마시며 건강도 챙기고 백제역사도 느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걷기코스"라며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힐링하면서 여유와 낭만의 시간 여행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동정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구본영 천안시장=19일 오후 2시 시청 봉서홀에서 열리는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 참석.

주간업무보고

황명선 논산시장=19일 오전 8시 30분 상황실에서 개최되는 주간업무보고에 참석.

작품발표회

최홍묵 계룡시장=19일 오후2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두마면 주민자치위원회 작품발표회에 참석.

간부회의

노박래 서천군수=19일 오전 8시30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

서천군 농어촌민박 확대 운영

숙소 부족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충남 서천군은 내년에 펼쳐지는 제71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2019. 5. 16 ~ 19.)에 참가하는 시 · 군 선수단과 임원이 머무르게 될 지역 내 숙박업소가 부족함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확대 운영한다.

이로써 서천군은 부족한 숙소를 해결하고, 시 · 군 선수단 등이 지역의 정과 먹거리, 볼거리를 마음껏 느끼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신청기준은 ▲ 소유자와 사업자(신고자)가 일치(다를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본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수동식소화기 1조 이상 구비 ▲ 화재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등이 적합하여야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첨부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천군청 문화관광과 생태관광팀에 제출하면 된다.

천안시 전국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우승'

천안시가 전국에서 가장 산불지상진화를 잘하는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시에 따르면 15일 충북 청주시 수안보스키장에서 열린 '2018년 전국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천안시가 1위를 차지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산불 지상진화훈련 경연대회는 실제 산불 진화 활동과 유사한 경연으로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의 장비와 운영체계의 이해를 높이고 산불 발생 시 지상 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연 진행은 산악형 산불을 가상해 2단 진화호스를 설치(연장거리 800m, 고도차 80m)하고, 진화용수를 50리터 담수용기 2개에 담수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충청남도 대표 천안시가 차지했다. 천안시는 9분 36초 기록으로 산불 완전 진화에 성공했다.

시는 평소 진화대원들에게 기계화 산불진화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해 왔다.

김덕환 산림휴양과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계기로 산불초동진화태세를 완벽하게 구축해 대형 산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역량 강화로 산불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동 정

덕지리 경로당 준공식

김정섭 공주시장=19일 오전 11시 탄천면 덕지리에서 열리는 덕지리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

월간 현안 보고

김동일 보령시장=19일 오전 8시 2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월간 현안 보고, 오후 2시 여수시청에서 열리는 보령시·여수시 체육회 우호교류 협약식 참석.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맹정호 서산시장=19일 오후 1시 서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참석, 오후 2시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리는 서산한우대학 수료식에 참석.

토종물고기 방류행사

문정우 금산군수=19일 오후 2시 제원면 천내습지서 열리는 토종물고기 방류행사에 참석.

금산우체국-레인보우지역아동센터 행복나눔 소원성취 업무협약 체결

금산우체국(국장 김준영)과 레인보우지역아동센터는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운영 행사를 통해 우리지역 취약계층 아동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익사업 일환으로 단순한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수혜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활동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내에 '소원우체통'을 설치하여 아동들이 연말에 받고 싶어 하는 물품 및 정서적 지원 등을 소원편지로 신청 받아 12월 초 대상자를 선정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는 행복메신저 활동을 할 예정이다.

김준영 국장은 "금산우체국은 매년 꾸준히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공적 역할 제고 및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여 고객에게 사랑받는 우체국이 되겠다."고 밝혔다.

금산=김정환기자

하반기 만세보령 금요대학 수료식

보령시는 16일 저녁 보령문화의전당 소강당에서 2018년 하반기 만세보령 금요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만세보령 금요대학은 시의 대표 시민 자치대학인 '만세보령 아카데미'의 보편성을 탈피해 시민들의 평생학습 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청한 집중 강좌로 지난 9월 7일부터 10차시에 걸쳐 운영됐다.

교육은 중·장년기 질병 관리 방법 및 지혜로운 식사법, 올바른 한방 상식 안내 등 건강관리 분야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생각의 힘, 첼로와 함께하는 시네마 콘서트 등 인문학 분야로 진행됐다.

하반기 운영 결과 참가자 85명 중 48명이 수료하게 됐으며, 자가 건강관리의 노하우와 음악, 문화 등 인문학적 소양을 한층 더 갖추게 됐다.

김동일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대표 시민자치대학인 만세보령아카데미와 더불어, 보다 심도 있고 풍요로운 지혜를 안내하는 금요대학 운영으로 폭넓은 사고와 저녁이 있는 삶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기자

아시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서산시, 500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 팸투어 실시로 관내 산업단지·관광지 홍보

서산시는 지난 14일 베니키아호텔서산에서 "아시아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15일 초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관내 산업단지와 관광지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산시가 주최하고 코트라 대전충남지원단이 주관한 이번 아시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내포 생활권 소재 우수 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상담회에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 5개국 22명의 아시아권 바이어와 43개 국내업체가 참여해 농식품, 화장품, 기계부품 등 126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500만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황토 건강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올팩은 베트남 Q사와 15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해 참가 기업 중 최고의 성과를 냈다.

또한 상담회장에서는 중기청,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수출유관기관 합동 컨설팅도 함께 진행되어 참여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상담회는 서산뿐아니라 당진, 태안 소재 기업의 참여와,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 참가기업 간담회, 전문기관 자문 등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업과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수출 첫걸음 과정, 해외 전시 마케팅기법 등 先 마케팅 교육, 後 바이어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상담회 성과 달성에 중요한 요인중 하나로 분석된다.

또 15일에는 초청 바이어 22명을 대상으로 관내 산업단지와 주요 관광지 팸투어를 실시해 서산 기업들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지를 홍보했다.

바이어들은 서산해미읍성, 천리포수목원 등 주요 관광지를 관람하고, 전통한과체험과 동희오토 등 첨단 산업단지를 견학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출상담회가 향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사항 조사 및 단계별 지원에도 계속 노력하겠다." 며, "앞으로도 인근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해외 유망 수출시장 개척과 확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서산=김정한기자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추진

서산시가 '사랑의 열매 20년,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을 실시한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최하고 충남도와 서산시가 후원하는 이 캠페인은 성금모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된다.

모금은 시 사회복지과와 각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성금 접수창구를 통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13일 시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집중모금 행사를 개최한다.

읍면동별 집중모금 일정은 이번 달 30일 부석면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 고북면, 수석동 ▲5일 팔봉면 ▲6일 부춘동 ▲7일 지곡면, 성연면, 동문1동 ▲10일 해미면 ▲11일 인지면, 음암면 ▲12일 대산읍, 운산면 ▲14일 동문2동, 석남동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 캠페인에서는 서산시에만 21억 9,000만원 가량이 모금됐고 다시 서산시에 26억 5,000만원이 배분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쓰였다.

서산=김정한기자

제13회 은빛축제한마당 개최

보령시는 16일 오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제13회 은빛축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보령시가 주최하고 보령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철)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 해 동안 어르신들이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익힌 솜씨를 가족과 지역주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열 세번째를 맞은 은빛축제 한마당은 '얼마나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배우는 기쁨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서로 격려하며 행복한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행사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기념식, 축하공연, 종합발표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종합발표회 1부는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어르신 공연이 진행됐고, 오후에는 중장년 합창반, 가요교실, 실버에어로빅, 한국무용 등 각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11개 팀의 발표 시간을 가져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쳤다.

보령=김태선 기자

친환경 절임배추 김장철 앞두고 '인기만점'

보령시, 20Kg 기준 택배비 포함 3만~3만5000원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보령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절임배추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절임배추 가공업계는 물론, 배추 재배 농가의 수익 향상에도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보령지역의 김장 배추 재배농가 및 면적은 각각 210농가, 140~150ha로 작황이 양호하고, 김장 시기 배추의 구매형태별 선호도는 신선배추가 47%, 절임배추가 53%로 지난해보다 1% 상승했는데, 이는 절임과정의 번거로움과 시간 절약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12월에 설립된 천북농협 김치가공공장은 연간 100만 포기의 배추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세척이나 절임 등 가공과정에서도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2012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배추김치와 깍두기 등 3종에 대해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아 맛과 품질 모두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10여 친환경 배추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엄선된 배추를 공급받고,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이용해 맛이 뛰어나다. 가격은 20kg 한 상자에 직접 방문은 3만원, 택배의 경우 3만4000원이며, 올해 20kg 1박스 기준 4000박스, 80톤을 판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문은 천북농협(☎041-641-3380~1)로 하면 된다.

또한 천북면 신덕리 소재 들꽃영농법인(대표 김기수)에서는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를 통해 직접 재배하고 무농약인증을 받은 배추를 이용해 김장용 절임배추를 생산하고 특히, EM을 먹고 자란 배추는 껍질에 보호막을 형성해 김치를 담가도 무르지 않고 아삭한 맛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다.

16농가로부터 EM배추를 공급받고, 인터넷과 집단급식소 납품을 통해 지난해와 비슷한 160톤(8000박스, 20kg) 정도 판매할 예정이며, 가격은 20kg 한 상자에 3만5000원이다. 구입문의는 들꽃영농법인(☎010-6434-1171)으로 하면 된다.

보령시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절임배추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웅천의 시골솜씨 절임배추(대표 양영호)에서도 본격적인 주문생산에 들어갔다. 해풍을 맞고 자란 고소한 배추를 이용해 인근 무창포해수욕장 앞바다 청정해수의 천일염을 희석해 12% 염도로 24시간을 염장한 뒤, 세척·포장해 판매하고 있어 풍부한 미네랄과 뛰어난 맛을 자랑한다.

지역 8농가로부터 배추를 공급받고 있으며, 20kg 한 박스에 3만2000원이다. 지난해에는 20kg 1박스 기준 1500박스를 판매했는데, 올해는 주문량이 폭주해 약 4000박스를 판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입 문의는 웅천 시골솜씨 절임배추(☎010-6358-2810)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배추 속 재료로 이용되는 명품 토굴젓도 지난해 방송을 타며 진짜 토굴젓으로 알려지며 동반 인기를 얻고 있다. 보령시 성주면의 보령토굴젓갈생산영어조합법인(대표자 박종익)에서 생산하고 있는 성주 토굴젓은 길이 약 120m의 폐광을 활용해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장기간 숙성으로 냉장 시설의 보관 보다 그 맛과 향이 더욱 깊고, 보령 액젓으로 담가 품질까지 믿음을 주고 있다.

김장용 액젓은 5kg 2만5000원, 10kg 5만원이고, 1kg 기준 추젓이 2만원, 오젓이 3만원이다. 구입문의는(☎010-6617-3733)로 하면 된다.

보령=김정미 기자

수능일 청소년 유해환경단속 합동 캠페인

공주시, 신관동 유흥가 중심 수능 후 청소년 일탈·비행 예방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수능이 끝난 지난 15일 저녁 8시부터 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활동 및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신관동 유흥가를 중심으로 수능 후 청소년의 일탈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효율적인 청소년 선도와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청소년 대상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행위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서의 출입·고용행위 등 유해환경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수능이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이 학교 주변 및 번화가의 노래방, PC방 등에서 음주·흡연 등 청소년의 일탈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11월 한 달간을 수능전후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해 지속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홍민숙 복지지원과장은 "수능시험을 치른 후 긴장이 풀어진 수험생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우/리/동/네

공주시, 창의클럽 우수활동사례 발표회 가져

참신한 아이디어·창의적 시책 발굴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시책 발굴을 위해 추진한 '창의클럽' 활동성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그동안 국비확보에 따른 공모사업 응모, 시책 발굴,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해 온 34클럽 중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7개 클럽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활동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주시청 창의클럽은 자생적인 직원들의 모임으로 클럽당 4~7명으로 구성, 지난 3월 발대식을 갖고 34개클럽 189명이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국비확보, 재능기부 자원봉사활동, 선진지 벤치마킹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활동 성과로는 6차 산업화 및 외식관련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토종밥상 식문화 발전소 조성, 전통시장내 맨발의 청춘몰 조성, 인절미 명인학교 조성 등의 정책제안과 인삼체험상품 및 분화 상품화 개발 연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천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원도심 아고라 공간조성, 캐릭터활용 상권개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활용한 생태문화공간 조성, 야간공동이용어린이집 설치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었다.

기타 클럽활동으로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등을 방문해 이·미용 봉사 33회(150여명) 실시, 경로당 7개소 방문 200명의 노인분들에 대한 혈당체크, 안마 및 청소활동 등을 전개했으며, 22회에 걸친 클럽별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사례에 대한 시책반영은 물론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등 많은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날 최우수 클럽으로 선정된 '3·6·9 Agro-Healthy', 우수클럽으로 선정된 '천시공주'에게는 해외배낭연수 기회가 주어지며, 나머지5개 클럽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손권배 부시장은 "모든 회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펼쳐줌으로써 뜻 깊은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활동 하나 하나가 모여 공주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하게 된다"며, "앞으로 시민행복을 위한 시책들을 더 발굴하여 신바람 나는 공주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중앙아시아 인삼수출 교두보 확보

금산군, 키르기스스탄 국제우호교류 MOU 체결

금산인삼 수출의 중앙아시아권 교두보가 확보됐다.

금산군은 지난 13일 키르기스스탄 농림부 및 15일 이스쿨州와 국제우호교류 MOU를 체결했다. 금산군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중앙정부 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양 국가 및 도시는 앞으로 농업, 인삼 등 공통 관심 분야의 활발한 활동은 물론 문화·관광·스포츠 등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게 된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하며 인구는 626만명, 면적은 19만9,951km2, 언어는 키르기즈어(공식어), 러시아어(공용어)를 사용,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다.

이스쿨州는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로 불릴 정도로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제주도 4배 크기의 이스쿨 호수를 보기 위해 매년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이번 협약은 키르기스스탄측이 국제교류 의사를 직접 타진해오면서 성사됐다. 향후 중앙아시아 권역의 인삼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양 국가 및 도시의 우의 도모는 물론 금산인삼의 해외수출 판로확대, 농업발전 교류 등 금산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산=주연기기자

보령시, 2018 자원봉사대학 수료식 가져

소통-정보교류의 장 마련

보령시는 16일 오후 보령시자원봉사센터 2층 교육실에서 2018 보령시 자원봉사자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보령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찬수)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에게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소통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자원봉사와 관련된 기본교육, 역할과 자세, 응급상황 시 대응방법, 자원봉사 활동 사례 등 이론교육과 성공을 부르는 리더십 특강, 석고방향제 만들기, 사회복지시설 현장체험학습으로 진행됐다.

김동일 시장은 "남다른 신념과 실천으로 우리 시를 더욱 가치 있고 품격 높은 도시로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는 자원봉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배려와 나눔이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로 찬란히 빛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TV 오늘의 하이라이트

▲ 차달래 부인의 사랑 (KBS2 오전 9시00분)

현우는 찜질방에 이어 식당과 승강기에서 복남의 행동에 수상한 낌새를 느낀다. 동현을 경찰에 신고한 일로 준호에게서 엄마 자격도 아내 자격도 없다는 말을 들은 송주는 가출을 하고, 달숙의 한강 공연 영상이 인터넷에 퍼진다.

▲ 나도 엄마야 (SBS 오전 8시 20분)

"나 미국 갈 거야" 김민준, 우희진 찾으러 가출!?
현준(박준혁)과 경신(우희진)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된 태웅(김민준)은 큰 충격을 받는다. 태웅(김민준)은 경신(우희진)이 미국에 있다고 착각해 홀로 공항으로 향했다가 사고의 위기에 처한다. 한편 상혁(알렉스)과 지영(이인혜)은 더 이상 태웅을 경신으로부터 억지로 떼어놓아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 배드파파 (MBC 오후 10시00분)

Zero-Sum
경기 중 신약을 사용해 상대를 혼수 상태에 빠뜨린 지철(장혁). 죄책감에 빠진 지철은 가족과 동료 앞에서 모습을 감추는데...

케이블 명화

▲ 석조저택 살인사건 (OCN 오전 2시30분)

영화 <석조저택 살인사건>은 서스펜스 소설의 거장으로 불리며 장르 독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은 빌 S. 밸린저의 대표작 [이와 손톱]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해방 후 경성, 거대한 석조저택에서 두 남자가 마주한다.
그리고 울린 여섯 발의 총성.
최초 신고자의 전화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고,
운전수 '최승만'을 살해한 혐의로 경성 최고의 재력가 '남도진'이 체포된다.
하지만 현장에 남은 건 사체를 태운 흔적과 핏자국, 그리고 잘려나간 손가락 뿐.
미스터리한 석조저택 살인사건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는데…
정체불명의 운전수 최승만(고수)
경성 최고의 재력가 남도진(김주혁)
사건을 무마하려는 변호사(문성근)
유죄를 입증하려는 검사(박성웅)
치밀하게 계획되고 잔인하게 실행된 살인사건!
이 모든 것은 누군가가 설계한 속임수다!

▲레미제라블 (채널CGV 오후 10시00분)

올 겨울, 당신의 영혼을 울리는 감동 대작!
사랑과 용서, 구원과 희망을 향한 노래가 시작된다!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휴 잭맨).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의 박해를 받던 장발장은 우연히 만난 신부의 손길 아래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결심한다. 정체를 숨기고 마들렌이라는 새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지내던 장발장은 운명의 여인, 판틴(앤 해서웨이)과 마주치고, 죽음을 눈앞에 둔 판틴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딸, 코제트(아만다 사이프리드)를 장발장에게 부탁한다. 그러나 코제트를 만나기도 전에 경감 자베르(러셀 크로우)는 장발장의 진짜 정체를 알아차리고, 오래된 누명으로 다시 체포된 장발장은 코제트를 찾아 탈옥을 감행하는데…

세계적인 주요 뮤지컬 상 70여 개 석권한 최고의 뮤지컬 <레미제라블>!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2012년, 드디어 영화화 된다!
아카데미 4관왕 <킹스 스피치> 감독과 세계 4대 뮤지컬 프로듀서의 만남!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60-398-3355

영화 · 오락

◈ OCN
5:10 본레거시
7:30 특별시민
10:10 신의 퀴즈: 리부트
12:50 리틀 포레스트
14:50 석조저택 살인사건
17:00 콩: 스컬 아일랜드
19:40 앤트맨
22:00 커뮤터

◈ 채널 CGV
6:30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
8:50 벤허(2016)
11:00 접속
13:10 고스트 버스터즈(2016)
15:20 콜로니아
17:20 어카운턴트
20:00 잭 리처
22:30 레미제라블(2012)

◈ Mnet
7:20 M morning
8:30 프로듀스101 시즌2
12:40 쇼미더머니 베스트 퍼포먼스
13:00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 에필로그
14:30 역대 MAMA 베스트 퍼포먼스
15:20 IZONE CHU
16:40 Daily Music Talk
17:20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 에필로그
18:50 IZONE CHU
20:10 Live on M
21:00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 에필로그

스포츠 · 레저

◈ MBC 스포츠플러스
9:00 18-19 SKT 5GX 프로농구
10:00 2018 NFL
13:00 <당구스페셜>2018 구리월드 서바이벌 3쿠션 마스터즈 본선
14:00 2018 리틀야구 올스타전
16:00 2018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 내셔널리그챔피언십시리즈
18:00 2018 메이저리그월드시리즈

◈ SBS 스포츠
10:06 18-19 V리그 남자부
12:07 2018 AFF 스즈키컵 하이라이트
13:03 18-19 V리그 여자부
14:59 주간배구
15:55 18-19 V리그 남자부
17:56 주간배구
18:50 18-19 V리그 남자부
21:04 주간배구 다이제스트

◈ 온스타일
6:35 매력티비
6:55 겟잇뷰티2018
9:15 겟잇뷰티2018
10:30 나의 아저씨
13:20 나의 아저씨
14:40 나의 아저씨
16:05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16:55 겟잇뷰티2018
18:10 밥블레스유
20:05 문제적남자
21:25 일방적 소개팅
22:15 겟잇뷰티2018
23:35 밥블레스유

뉴스 · 다큐

◈ YTN
8:00 이슈오늘
10:00 뉴스타워
12:00 뉴스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통
19:30 신율의 시사탕탕
21:00 뉴스모란
22:00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 한국경제TV
6: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00 출발! 증시830
10:00 증시라인 10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증시라인 13
15:30 부자 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N
17:00 성공예감 부동산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 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장외주식 사구팔구
20:30 대부천국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11:00 TV 동물농장
12:15 천 개의 비밀 어메이징 스토리
13:44 <세계 테마 기행> 히말라야의 동물들 네팔에 반하다- 1부
14:44 <죽음의 게임> 1부 - 킬러의 탄생
15:45 <찬란한 대륙, 아메리카> 전능한 강, 미시시피
16:39 TV 동물농장
19:04 <세계 테마 기행> 히말라야의 동물들 네팔에 반하다- 1부
19:59 아시아헌터

음악 · 애니

◈ MBC 뮤직
9:05 음악앨범
10:00 아이돌 TV
11:00 언더나인틴
12:30 피크닉 라이브 소풍
13:30 단짠 오피스
14:40 2018 MGA 베스트퍼포먼스
16:20 나 혼자 산다
18:05 2018 MGA 비하인드
19:00 쇼! 음악중심

◈ 애니맥스
7:00 넥소 나이츠 시즌3
8:00 지오메카 비스트 가디언
9:00 레인보우 루비
10:00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
11:00 꼬마버스 타요4
12:00 아울은 너무 이상해
13:00 안녕 자두야
14:00 헬로카봇 5
15:00 파파독
16:00 안녕! 괴발개발
17:00 터닝메카드W 시즌2
18:00 아울은 너무 이상해

◈ JEI 재능방송
6:00 퍼피구조대
7:00 넥소나이츠S3
8:00 지오메카 비스트가디언
9:00 파워캐치 윈다Part 2
10:00 텔레몬스터
11:00 꼬마버스 타요3
12:00 라바 시즌3
13:00 파워레인저 닌자포스
14:00 유희왕ARC-V
15:00 애슬론 또봇 3
16:00 소피루비
17:00 안녕! 보노보노
18:00 터닝메카드W 시즌2
19:00 마음의 소리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MBC 220-2348~9▶TJB 281-1101▶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다큐공감 11:50 UHD한식의 마음 12:00 KBS 뉴스12 1: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사색 1:50 2018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3:10 역사저널 그날 4:00 사사건건 5:00 KBS 뉴스5 5:30 동물의 왕국 6:00 6시 내고향 7:00 KBS 뉴스7 7:35 우리말 겨루기 8:25 비켜라 운명아 9:00 KBS 뉴스 9 10:00 가요무대 11:00 KBS 뉴스라인 11:30 오늘밤 김제동	6: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아침뉴스타임 9: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9:40 그녀들의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최고의 이혼 1: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2:00 KBS뉴스타임 2:10 생생정보 스페셜 3: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30 TV유치원 4:00 그녀들의 여유만만 5:00 살림하는 남자들 6:00 KBS경제타임 6:30 2TV생생정보 7:50 끝까지 사랑 8:30 글로벌 24 8:55 제보자들 10:00 최고의 이혼 11:10 안녕하세요	6:00 MBC 뉴스투데이 7:50 비밀과 거짓말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930 MBC 뉴스특보 9:45 기분 좋은 날 10:50 배드파파 11:30 배드파파 12:00 12 MBC 뉴스 12:20 배드파파 1: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 교실 1:55 2시 뉴스 외전 3:20 샤이닝 스타 3: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4:20 꾸러기 식사 교실 4:55 5 MBC 뉴스 5:15 MBC 플러스톡 특선 단짠 오피스 6:15 생방송 오늘 저녁 7:15 비밀과 거짓말 7:55 MBC 뉴스데스크 8:55 섹션TV 연예통신 10:00 배드파파 11:00 MBC 스페셜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6:00 SBS 뉴스 7:30 모닝와이드 8:30 나도 엄마야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00 SBS 뉴스 12:5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2:00 뉴스브리핑 4:00 생활의 달인 5:00 SBS 오뉴스 6: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7:00 생방송 투데이 8:00 SBS8 뉴스 8:55 생활의 달인 10:00 여우각시별 11: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6:00 충청남도 영상소식 6:20 최자영 시인 내 안에 그대 6:30 메디컬 인 7:00 은혜로운 말씀 7:30 열린미디어 시청자세상 8:00 섹션뉴스 8:30 CMB 집중토론 10:00 행복비나리 11:00 김영진의 집대성 12:00 CMB 뉴스 12:50 시청자뉴스 1:20 최자영 시인 내 안에 그대 1:30 문학의 향기 2:00 영웅적계광 2:5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 3:00 CMB 뉴스 3:50 청곡 박일규의 묵향 4:00 잘먹고 잘살고 4:30 건강플러스 5:00 C김회영의 이슈 앤 이슈 6:00 뉴스와이드 6:50 시청자뉴스 7:15 최자영 시인 내 안에 그대 7:30 메디컬 인 8:00 CMB 집중토론 9:3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 9:50 청곡 박일규의 묵향 10:00 찾아가는 열전 동네방네 11:00 노노들의 음치학개론	6:10 EBS 특별기획 통찰 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7:30 로보카 폴리 7:45 뽀롱뽀롱 뽀로로 8:00 딩동댕 유치원 8: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8:45 코코코 다코 9:00 캐니멀 9:30 원더볼즈 9:40 라이브 토크 부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세계테마기행 11:40 한국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시대공감 12:40 지식채널 e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원더볼즈 14:100 미술탐험대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35 꼬마기사 마이크 15:50 으랏차차 아이쿠 16:00 캐니멀 16:45 딩동댕 유치원 16:50 빵빵 요리버스 17:05 딩동댕 유치원 17:30 로보카 폴리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톡! 톡! 보니 하니1 18:05 플라워링 하트 18:20 톡! 톡! 보니 하니2 18:25 두키 탐험대 18:40 톡! 톡! 보니 하니3 18:45 똑똑! 우리 몸X파일 18:55 톡! 톡! 보니 하니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고부 열전 스페셜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 테마 기행

아산우리은행 '위비', 청주KB '스타즈'에 역전승

2018-2019시즌 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1라운드

아산우리은행위비(감독 위성우)가 지난 16일, 아산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2018-2019시즌 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1라운드 청주 KB스타즈와의 맞대결에서 59-57로 승리해 리그 단독 1위에 올랐다.

우리은행과 KB는 3경기 무패 공동선두에 올라 1라운드 첫 대결부터 미리 보는 챔프전으로 주목 받았다.

전반 내내 KB는 센터 박지수를 앞세워 골밑 공격과 하루만 쉬고 경기를 갖는 우리은행을 체력적으로 밀어붙이며 22-29로 전반을 리드했다. 3쿼터 3분이 채 지나기 전 KB 박지수는 쏜튼이 미끄러져 흘린 볼을 잡아 3점 슛을 시도했으나 림에 맞고 튀어나오자 공격리바운드 욕심을 부리다 크리스탈 토마스에게 반칙을 범해 반칙트러블(4반칙)로 교체됐다.

우리은행은 박지수의 교체로 KB의 골밑의 허술함을 틈타 센터 토마스를 이용 리바운드와 득점에 성공했고 한때 10점차이상 끌려가던 경기를 서서히 좁히더니 박혜진의 3점 슛, 상대 턴 오버에 이은 김소니아의 레이업슛, 김정은의 3점 슛, 박혜진이 드리블 돌파에 이은 바스켓 굿 득점, 임영희의 레이업슛, 토마스의 패스를 받은 김소니아의 컷인플레이 슛을 성공시켜 마침내 45-44로 3쿼터 역전에 성공했다.

주전선수 5명의 고른 득점에 힘입어 우리은행이 59-57로 KB에게 첫 패배를 안겨주며 리그4연승 단독선두에 올랐다.

2쿼터 8득점을 혼자 올리며 팀의 패배위기에서 구해낸 김소니아(12득점 10리바운드)는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토마스(11득점 12리바운드)는 4연속 더블-더블 기록을 이어갔다. 박혜진 14득점, 김정은, 임영희 각각 9득점, 최은실 4득점을 기록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아산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19 참가자 모집

순천향대학교가 수탁운영하는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관장 남상인)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꿈 · 달 · 아)에서는 아산시 관내 예비 중학교 1학년을 대상 참가자 모집을 진행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 생활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사업이다.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방과후아카데미(꿈 · 달 · 아) 참가 신청기간은 11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이며, 활동기간은 2019년1월~12월까지이고, 대상은 예비 중학교 1학년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학습과정, 주중 · 주말체험, 급식, 귀가지도, 진로탐색 등을 지도하며, 참가비는 연간 교육비 전액 무료이다.

접수방법은 전화상담 후 방문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팀 방과후아카데미 담당 041-539-6644-6로 하면된다.

송병배기자 / 아산=리량주기자

<피아니스트 최진아 독주회 My Romantic Story> 개최

오는 24일 오후 2시,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피아니스트 최진아가 오는 24일 오후 2시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피아니스트 최진아 독주회 "My Romantic Story(나의 낭만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독주회에서는 브람스의 <3개의 인터메조(Drei Intermezzi Op.117)>를 시작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소나타 제2번(Piano Sonata No.2 Op.36)> 그리고 슈만의 <카니발(Carnaval Op.9)을 연주하며 폭풍과도 같은 열정과 시인의 서정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음악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이처럼 독특한 극적 감수성을 음악으로 전개해 놓은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 슈베르트와 풍요로운 선율과 화성감이 뛰어난 신고전주의 작곡가 브람스 그리고, 러시아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화려하고 열정적인 곡들을 피아니스트 최진아의 원숙한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피아니스트 최진아는 대전예고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한 후, 미국 뉴잉글랜드음악원 석사과정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했으며, 일찍이 충남대학콩쿨1등, 서울한전아츠풀콩쿨, 난파콩쿨을 입상했으며, 문화부장관상, 교육감상, 카톨릭문화콩쿨 1등, 한국일보 코리아타임즈 대상 등 다수의 콩쿨에서 최고상을 수상하고 미국 보스턴 알링턴필하모닉 영아티스트 컨피티션 피아노 부문 1등을 한 바 있다.

유학 후, 서울과 대전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최진아는 2011년 일본 오사카 국제콩쿨(Osaka International Competition) 실내악부문 입상 및 American Protege International Competition Piano Duo 부문 1위를 해 지난 3월 미국 뉴욕카네기 와일홀(New York Weill Hall)에서 연주하며, 자신의 음악세계를 넓혀가는데 있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실력있는 젊은 연주자이다.

한국교원대, 한국과학기술대학교(구 홍천대), 대전보건대, 공주금성여고 음악중점반, 고양예술고, 계원예술중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대전예술고에 출강 중이며, Ensemble WITH 리더로 활동 중이다.

티켓은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인터파크티켓과 대전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42-477-8220(나무예술기획)>

송병배기자

한국영상대 게임애니메이션과

G-STAR 2018(지스타 2018) 참가

한국영상대학교(총장 유재원) 게임애니메이션과가 지난 15일부터 열리는 'G-STAR 2018(지스타 2018)' 국제게임 전시회에 참가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주최하고 G-STAR 2018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G-STAR 2018'은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제게임 전시회에는 우리대학 게임애니메이션과 12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하여 우리대학의 우수작품 전시와 게임시연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게임 ·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는 참가 학생들에게 우리대학의 홍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정상범기자

EN.F Total Interior Design 연.에프 대표 손 혁 건 Mobile 010-8422-6946

대덕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대상
대덕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진)가 지난 15일 대전 서구 탄방동 더오페라웨딩컨벤션에서 열린 '201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이하 지역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대전어린이회관 개관 9주년 기념행사 진행 어린이들의 문화생활 장려와 놀 권리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관장 이충선)이 개관 9주년을 맞아 11월 17일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체험시설 교체설치에 따른경과보고와 제7회 사생대회 시상식이 진행됐다.

온주복지관, 호서대와 방문물리치료서비스 진행 굿네이버스 온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채종병)은 16일, 호서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학생들과 함께 '방문물리치료서비스'를 진행했다. '방문물리치료서비스'는거동이 불편한어르신을대상으로 지난9월 21일부터 16일까지 7회기에 걸쳐 진행됐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찾아가는 입대전 병역 진로설계 김태화병무청 차장이 지난 16일 서울 소재 삼성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입대전 병역진로 설계에 대해 설명회를 갖고 있다.

대전대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캡스톤 디자인 Fair 최우수상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학과장 김성학 교수)가 진행한 '오! 대전(O! DAEJEON) 2018전시 <ZOOM>' 프로젝트가지난13일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개최한 '제3회 지역사회공헌 캡스톤디자인 Fair'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주시 의당면, 새마을회와 함께 사랑의 김장담그기 공주시 의당면(면장 이춘형)은 의당면새마을회(협의회장 서주원, 부녀회장 이현자)와 함께 지난15일과 16일 면사무소 광장에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건양사이버대, 캄보디아 정부기관 및 대학과 협정 체결

한-캄 교육콘텐츠 교류 국제워크숍

건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원묵)는 지난 8일 캄보디아 프놈펜(Phnom Penh)에 위치한 Sunway Hotel에서 캄보디아 사회부(MoSVY: Ministry of Social Affairs, Veterans and Youth Rehabilitation), 사회부 산하의 국립 사회부 대학교(NISA: National Institute of Socia Affairs), 노인복지 전문 국제 NGO 기관인 HAC(Help Age Cambodia)와 함께 'Senior Care Management Program for Better Life of the Elderly in Cambodia and Korea'주제로 공동 국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캄보디아 사회부(MoSVY)와 국립사회부 대학교(NISA)와 함께 캄보디아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콘텐츠 공유 및 공동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캄보디아 사회부 차관 H.E. Say Siphon 주재하에 사회부 차관보 H.E. Mom Bunthan, NISA 대학교 총장 H.E. Saneth Vathna, Help Age Cambodia 대표 Mr. Tum Vira 그리고 건양사이버대학교 김용덕 부총장, 서용완 노인복지학과장, 방용환 글로벌교육혁신단장, 강태구 정보통신원장 및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캄보디아 현지 민영방송인 CNC, SEA TV, 국영방송인 TVK가 취재를 나올 정도로 현지 언론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당일 저녁 모든 미디어 방송과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앞서 대학은 지난 5월 교육부와 KERIS가 주관하는 "2018 성인학습자 역량강화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요양보호사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시니어케어 매니지먼트 프로그램'(SCMP)을 개발 완료했다. 개발된 교육과정은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할 때 필요한 지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개발되었다.

김용덕 부총장은 오프닝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대학에서 개발된 교육콘텐츠가 노년기에 다다른 캄보디아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캄보디아 정부기관 및 대학과 손잡고 양국의 보다 나은 미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구기자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2018년도 연차대회 성황리에 마쳐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회장 정상철)는 지난 15일 지사 2층 대강당에서 창립 113주년 기념 지사연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이강진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내외빈, 봉사원, 직원 등 300명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축사에서 "적십자 봉사원은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 대표선수다"며 "앞으로 대전시도 적십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또한 이강진 대전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은 축사에서 "적십자는 국경과 정파를 초월하여 우리 주변을 돕는 인도주의 활동기관이다"며 "앞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남북교류까지 적십자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연차대회에서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기여한 총 27개 부문 595명을 대표해 34명에게 적십자포장,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정상범기자

당진시 노인복지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원봉사자 · 후원자 감사의 밤 개최

당진시 노인복지관(관장 이병하)은 지난 15일, 2018년 한 해 동안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온 자원봉사자 · 후원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활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자 '2018 자원봉사자 · 후원자 감사의 밤'을 메가 패밀리 뷔페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150여 명을 초청해 공연 관람, 기념식, 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병하 관장은 "당진시 노인복지관을 위해 보내주신 자원봉사자, 후원자님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인해 어르신들의 매일매일이 희망이 되어 행복하고 따뜻한 한 해가 되었다" 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내년도에도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우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유공자 표창이 진행되었으며, 수상자로는 ▲당진시장 표창 패는 서정숙 자원봉사자 ▲당진시 의장 공로패는 최차범 후원자, 이진희 자원봉사자 ▲국회의원 표창 패는 (단체) 대덕 2통 부녀회, 양순화 자원봉사자 ▲당진시 복지재단 이사장 표창장은 (cj헬로 충남방송) 박미숙 대표, 송영환 자원봉사자, 김종석 자원봉사자가 수상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한마음새마을금고 행복나눔봉사단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나눔' 행사

한마음새마을금고(서인석 이사장) 행복나눔봉사단(팀장 윤성임) 회원 25명과 자원봉사자 학생 10명 등 총 35명은 지난 15일 배추 300포기(김장김치 170포기, 백김치 130포기)를 담그는"따뜻한 겨울나기 김장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날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나눔"행사에서는 총 40가정(반찬지원처, 지역경로당, 효동주민센터 추천가정)에 김장김치 총 100박스를 지원했다.

한마음새마을금고 서인석 이사장은 "매년 지원규모를 늘려 지역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과 모자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복나눔봉사단 윤성임 팀장은 "주부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즐겁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한마음새마을금고가 있어서 늘 든든하다"고 전했다.

한마음새마을금고는 2015년부터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 반찬봉사를 통해 독거노인, 모자가정에 반찬 3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대전충남 새마을금고 어울림 한마당" 행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협의회가 주최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후원하는 [대전충남 새마을금고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지난 17일 천안 MG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홍문표 국회의원, 대전충남 박두교 협의회장 및 관내 새마을금고 임직원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또한 2018년 대전충남 좀도리운동 모금(목표)달성 다짐 선포식을 갖고, 4억원을 모금목표로 불우한 이웃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유공자 포상에는 장관표창에는 유성온천새마을금고(단체), 태평새마을금고 강중운 이사장, 대청새마을금고 오종일 전무, 대성새마을금고 장도순 전무, 중앙회장 표창에는 서병새마을금고 이흥우 이사장, 금오새마을금고 박자원 이사장, 소제새마을금고 임병욱 상무, 천안북부새마을금고 김은규 부장, 신우새마을금고 안광순 차장이 수상했다.

송병배기자

(사)대한한돈협회 공주지부

이웃사랑 한돈 나눔행사

(사)대한한돈협회 공주시지부(지부장 노흥종)는 지난 15일 공주시청을 방문해 관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한돈 1600kg(1천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노흥종 지부장은 "한돈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대한한돈협회 공주시지부의 꾸준한 이웃사랑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축산인들의 이웃사랑이 한돈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 한돈 소비가 더욱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한국영상대 영화영상과 조승원 학생 '제7회 바스타우 국제영화제' 각본상 한국영상대학교(총장 유재원) 영화영상과 조승원 학생이 연출을 맡은 단편영화 '가치 캅시다'가 '제7회 바스타우 국제영화제(BASTA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F STUDENT FILMS AND FILM SCHOOLS)'에서 각본상을 수상했다.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제5회 노인건강아카데미' 수료식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관장 강미희)은 지난15일 복지관 회원과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노인건강아카데미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건강아카데미 수료식은 실버하모닉스의 축하공연, 건강아카데미 운영보고, 수료증 전달식 순서로 진행됐다.

■알 림
▲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대전 종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19일 오후2시, 대전시청 북문
주최 : 국민주권 실현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대투 논단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가?

김헌태 논설고문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있어 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것이다. 헌법 제 34조 5항에 "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이다. 제 4조 1항에는 장애인의 권리도 명시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 2조 장애인의 정의도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 1항(장애인의 정의 등)에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 2항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에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이 있다. 제 1항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15종별로 나누어 놓았고, 제 2항에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담긴 종별 장애인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 · 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등 15종류의 장애인이 법정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 종별장애인들은 그 특성에 따라 정책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요즘에는 나름대로 중증장애인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척수장애인, 교통장애인, 산업재해장애인, 근육장애인 등 새로운 장애인군이 형성되어 지체장애인으로부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15종류로 되어 있다. 물론 장애인단체들은 종별 장애인보다 더욱 세분화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을 넘어 2016년 8월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마련되어 인간으로서 평등권과 존엄성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명시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 법의 1조 목적에는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제2조(장애와 장애인) 1항에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 ·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며 2항에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하여 신체적 장애에서부터 정신적 장애에 이르기 까지 장애인의 차별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이다. 제1항을 보면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 · 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강력한 주문이다. 그동안에는 정신보건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보내 별도로 관리해 왔다. 그러다가 2016년 5월 29일 전부 개정하여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정신장애인들을 넘겼지만 여기에 중대한 결함과 차별이 도사리고 있다. 한마디로 정신장애인이 없는 모순된 법이 된 것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을 보면 제1조(목적)에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 ·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 복지 ·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 3조에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정신장애인이란 명칭이 사라지고 질환자만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환자를 위한 법이지 정신장애인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이란 종별장애인의 법적 용어는 사라지고 환자라는 명칭만 남아있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장애인들도 지체질환자, 뇌병변질환자, 시각질환자, 청각질환자, 언어질환자, 신장질환자, 호흡기질환자, 간질환자, 안면질환자, 장루 · 요루질환자, 뇌전증질환자 등으로 불러야 하는데 왜 유독 정신장애인만 질환자라는 환자명을 붙여 장애인 명칭을 굳이 없애버리는지 이것도 차별 중에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 복지법의 제 15조에 다른 법률적용 장애인이라는 논리적 모순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정신건강복지법을 보면 정신장애인이란 말은 단 한 줄도 없다. 어쩌다가 이런 법이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법적 종별 장애인인 정신장애인도 엄연히 등급이 존재한다. 등급심사를 통하여 중증여부도 가린다.

이런 혼돈스러움이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취급을 받지 못하고 기존장애인과의 차별을 불러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이면서도 여타 장애인과 별도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조차 정책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모순과 차별이 도사리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의 활용에 있어 더욱 그렇다. 더욱이 관련법에 따르면 치료대상자인 정신질환자를 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에 수용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장애인복지법과 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은 정신장애인이지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모순된 법체계로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이 심화 될 수 밖에 없다. 정신장애인이면 정신장애인이지 정신질환자로 낙인찍어 가득이나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정신장애인의 불평등이 심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정신질환의료급여 환자들은 다른 종별 장애인의 의료급여 환자와 달리 엄청난 진료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사회복귀를 위한 모든 정책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준으로 동등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을 정신질환자로 떠넘기며 장애인 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아니다. 용어의 명확한 체계적인 정리가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졸속입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를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신장애인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도 동시에 준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정신질환으로 치부하지만 말아야 한다. 이들도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갖고 치유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귀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그렇다.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고 단지 정신질환자인지 살펴보고 역차별을 탈피해 다시금 관련법들의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기 고

작은 변화의 시작, 가족친화경영 패러다임 변화

권준 한국경영인증원(KMR) 팀장

얼마 전 한 기업의 '육아 휴직 후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광고를 본 기억이 난다. 그 광고는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난 후 드는 생각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직장사회에서 도태된다고 여겨졌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광고가 방영되고 이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된 것만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패러다임은 이미 많이 변화하고 있는 듯하다.

올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장인들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인증원(KMR)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은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10년간 무수히 많은 기업과 기관을 만나보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의 제도와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

처음 14개사로 시작한 인증기업 수가 현재는 2800개사로 성장을 하였고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재부 지정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증 의무화가 되었다. 이제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가족친화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가족친화인증을 통한 성장

가족친화인증 담당자와 기업이 인증을 받고 난 이후에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인증업무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의 마인드 변화, 조직문화의 개선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욱 열심히 인증의 의미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매년 3월 이후에 사업이 시작되며, 전국 광역시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20여차례 이상 개최한다. 이전에는 서류를 출력하여 직접 제출을 하였는데 16년부터는 가족친화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제반서류를 홈페이지에서 직접입력이 가능하고, 점수 산출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단축시키고 편리해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매년 12월에는 신규인증기업 대표를 초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인증서를 수여한다.

기업성장과 가정행복의 양면

기업성장과 가정행복의 선상에서 일과 가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일과 가정 양립을 5:5로 나눠서 열심히 하자고는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생으로 인한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주위시선과 대체인력의 채용 등의 기업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보았다.

기업 입장에서 가족친화경영 복지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와 비수혜자 괴리감과 비용발생으로 인해 꺼려하는 곳도 있었다. 이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기업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꼭 일을 많이 해야만 성과가 오르고 실적이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다. 기업은 조직의 목적에 맞는 가치체계를 구축하고, 그 가치체계에 대한 구성원 모두의 인지와 내재화가 꼭 필요하다.

기업의 미션과 비전에 맞는 핵심가치를 토대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듀얼아젠다(Dual Agenda) 관점으로 업무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각 부서나 팀의 업무성격과 업무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업무방식의 선택과 근무형태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 조직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나, 여가부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의 컨설팅을 통하여 업무방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로자와 기업의 행복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지난 10년 동안 많은 다양한 기업과 형태를 보면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조직내에서는 소통 · 다양성 · 배려 · 협력 등의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단시간의 혁신으로 일어나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성원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고 보여진다.

우리 조직에서도 긍정적인 작은 변화가 이뤄져가고 있는데, 예를들어 '통통통'이라는 주니어보드가 만들어지고 신입사원부터 선임연구원까지 젊은 세대를 대변해주고 있고, 각 직원의 애칭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더욱 서로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비용이 많이 들고,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는 변화가 아닌 같이 즐기고 행복한 문화의 발돋움이 필요하다. 앞으로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이런 작은 변화의 시작으로 따뜻한 배려와 사랑의 조직문화를 안겨주는 인증제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사 설

장시간 노동 우려 탄력근로제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여야 3당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다. 아직 법률로 공포되지는 않았지만,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 하지만 직접 당사자인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다.

확대의 근거인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정치권이 받아들인 것인데 노동이 집중되는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 노동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적을 때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이 많을 때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가능한 단위 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때 2주, 노사 합의에 따라서는 3개월까지다. 이 단위 기간 내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면 된다.

얼핏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제도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사용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사람은 어느 정도 일을 몰아 할 수도 있지만, 생체리듬에 따른 노동이라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몰아치기해 놓고 그만큼 쉬면 된다는 논리는 인간의 생체리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합의된 탄력근로제는 사용자 편의를 봐주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등 실질적 이익이 없다. 주 52시간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연장근무로 받는 노동자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더 어처구니없는 후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분명히 개악이다. 정부는 이번 개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양이지만 실제는 조삼모사의 논리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후퇴하는 것이다.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경제가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고는 있지만 잘못된 타개책은 더 위험하다. 노동 유연성도 확보하고 노동자 권익도 확대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유리해 보이는 것은 아무리 잘 보아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다. 줄어드는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정치권과 정부가 채워줄 것인가, 과로의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가.

건강한 생활습관 절주 실천

건강 칼럼

노은중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부원장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꿈은 그냥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사는 동안 자신의 노력을 통해 성취하여야 하는 노력의 결실이다. 이러한 행동들을 건강한 생활습관이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금연, 절주, 건강한 식습관 및 신체활동이 있다. 이들 중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절주. 절주하는 생활습관에 대해 알아보자.

절주를 실천하기 어려운 사회

절주가 어려운 이유는 그게 무엇인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번에 마시는 주량을 두 병에서 한 병으로 줄이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절대 기준(4잔) 이하로만 마시면 되는 것인가? 만약 이런 기준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될 수 있는 황금률인가? 아니면 사람마다 다른 것인가? 마시는 술의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가? 선호하는 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절주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는 마셔야 할 주량과 심지어 선호하는 주종조차도 본인이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식에서 음주를 할 경우 마셔야 할 술은 대체로 이미 정해져 있다. 소주나 맥주 아니면 이것을 섞은 술, 마셔할 주량은? 그것도 마시는 사람이 정하기 어렵다. 음주 회식 빈도도 다른 사람이 정한다. 결국 내가 마시는 술의 종류와 양과 빈도를 내가 아닌 남이 다 결정해 주는 셈이니 절주를 실천하기 어렵다.

절주를 잘 실천하지 못하니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절주를 하지 못해서(해롭게 음주해서) 잃게 되는 건강수명 기간은 11.1개월이나 된다는 것이 연구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주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최근의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들을 총 정리해서 이에 대한 답을 만든 국가가 있다. 영국이다. 영국의 국민 절주지침, 정확하게는 저위험 음주지침(low risk drinking guidelins)을 보면 이렇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14잔(소주 두 병에 해당)을 넘지 않도록 마시되 적어도 2일은 금주하여야 한다.

사실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마실 경우에는 암 발생과 아무 관련이 없는 주량은 없다. 지침이 정한 범위 내로 마신다면 암에 걸릴 위험을 최소로 적게하는 것일 뿐이고 음주로 인한 암 발생을 없애려면 안 마셔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마실 경우에는 조기 사망과 만성적인 질병이나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마시는 음주를 10년 넘게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질병들로서 암, 뇌졸중, 심장질환, 간질환이 있고 신경계나 뇌에도 폐해를 입을 수 있다. 물론 폭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금주를 하면 금단증상을 가질 정도의 사람들은 치료를 받아야 하며 술을 줄이고 싶은 의지가 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시지 않을 권리

술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결과는 마신 사람에 따라 다 다르며 동일한 사람이라도 어느 시기에 누구와 어떤 속도로 마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기 때문에 위험이 없거나 안전한 주량은 얼마라는 것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일주일 동안에 마셔야 할 총량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제한하여야 하며 천천히 물이나 음식(안주)과 함께 마셔야 한다.

술자리에서 명심하여야 할 또 다른 것은 음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면 대리운전을 생각하여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하며 회사의 회식 상황이라면 음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말실수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자기통제를 잃은 적이 있었거나 혼자 남겨져서 위협에 처한 적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비록 영국이 마련한 지침이지만 과학적으로 치밀한 근거에 기반하여 만든 것이라 우리 사회의 절주 지침으로도 적절해 보인다.

이런 지침을 잘 지키려면 음주자 자신이 이 지침을 잘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음주자가 음주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절주 실천을 쉽게 하려면 권하는 술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음주는 이 지침 범위 내에서만 마신다"거나 술을 거절할 권리를 주장하여도 문화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밥을 다 똑같은 양으로 먹자고 주장하지 않듯이 주량을 강요하지 말고 마시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밥을 강요하듯 술을 강요하는 인간관계는 바로 갑질을 하는 것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 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투데이
이제는 전광판 시대
광고문의는 대전투데이로
광고문의 : 042-538-3030